

#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 과월호를 다운로드 받아서 책자 모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6

통권168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가듯  
총실한 도약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 Mens & Ladies

HEAVY CASUAL JACKET and PANTS



**PT. UNGARAN INDAH BUSANA**

( EXPORT-IMPORT & MANUFACTURE )

3rd Floor SATMARINDO Building, Jl, Ampera Raya No.5, Cilandak

Jakarta Selatan 12560-INDONESIA

Tlp.(021) 7800820, Fax.(021)7805823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 국민을 위한 Garuda Orient Holidays 패키지 모음

## GOH 와 유럽 가기

11일간의 환상적인 유럽  
최 저가로 즐기는 절호의 기회

성인 \$1,969  
어린이 \$1,595

제01일	자카르타-암스테르담	제07일	파리
제02일	암스테르담-퀸-프랑크푸르트	제08일	파리-브뤼셀
제03일	프랑크푸르트-인스부르크	제09일	브뤼셀-암스테르담
제04일	인스부르크-루체른	제10일	암스테르담
제05일	티트리스 산	제11일	암스테르담-자카르타
제06일	루체른-파리		

### 여행 출발 일자

6월 23/25/27/30

7월 02/06/09/16/20/23/27/30

포함사항 : 자카르타-암스테르담 왕복티켓/암스테르담 공항세 및 항공보험./여행자 보험/  
여행, 숙박, 교통편 일정 중 식사(일부)/여행가이드(영어)/자카르타 공항 송객서비스/

## GOH 와 인도네시아 가기 1,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6월 30까지 유효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1실	1인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Standard Superior	499,000	549,000
★★★★	Mercure Convention Centre Aston Marina	Superior 1BedRoom	529,000	599,000
	Crowne Plaza Gran Melia	Deluxe Deluxe	559,000	73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Superior Splendor	599,000	779,000
★★★★★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669,000	88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 GOH 와 인도네시아 가기 2, "인도네시아 국민 가족초청 발리 AIRTEL"

6월 30까지 유효

지역	호텔	요금(원)		
		평일 출발	일*월요일 출발	
짐바란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619,000	819,000
	★★★★★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779,000	989,000
사누르	★★★★★	Sanur Beach Hotel	659,000	869,000
꾸따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Center	649,000	849,000
	★★★★★	Holiday Inn Resort Baruna Bali	739,000	949,000
누사두아	★★★★★	Aston Bali Resort & Spa	669,000	879,000
	★★★★★	Melia Bali Villas & Spa Resort	709,000	919,000
	★★★★★	Nikko Bali Resort & Spa	769,000	979,000
	★★★★★	The Westin Resort	759,000	969,000
우붓	★★★★★	Beji Ubud	699,000	909,000
	★★★★★	Alila Ubud	819,000	1,020,000
따나룻	★★★★★	Le Meridien Nirwana	719,000	929,000
스미낙	★★★★★	Sofitel Seminyak	739,000	94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간 항공권, 발리 GOH 호텔 2박3일 숙박 및 발리공항-호텔간 차량			

GOH 와 여행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 인도네시아 국내여행 및 호텔예약도 도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 가자! 16강으로 모이자 JIKS로!

우리 모두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이 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번 한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본 한인회는 모두가 하나되는 응원의 한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오셔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시 : 그리스 전 - 6월 12일(토) 오후 6:30

아르헨티나 전 - 6월 17일(목) 오후 6:30

장소 :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대 강당

참석자 준비물 : 태극기, 붉은 T-셔츠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음료수는 한인회에서 제공합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과월호 한인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15



34



36



## 08 차 한잔 마시며 신임 회장단에게 바란다

### 10 한인사회 소식

- 한인상공회의소, 금년도 발전로드맵 논의
- 2천여 한인영혼 위령탑 수라바야에 건립
- 문인협회, 출범 후 첫 시낭송회 개최
- 한인 첫 청소년 오케스트라 HJU, 성공적 연주회로 교민사회 데뷔
- 한바패, 신명나는 어버이날 한마당 개최
- 사진작가 김세영 씨, 국내외 풍경 170점 선보여
- 굿네이버스,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초등학교 재건축 착수
- 안선근 씨 박사학위 취득
- 천안함 사태 계기로 안보의식 강화해야
- 봉제협회, 2010년 회원사 주소록 발간
- 월대한민국 대검찰청, 선진마약수사기법 노하우 인니에 전수
- 김무환 씨 인니 현대사 강의에 교민들 큰 관심 보여
- 경북 명품사과 '데일리' 현지시장 공략
- 성공하는사람들의 7가지 습관.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라
- 반동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하나은행, 반동지점 오픈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소식

32



## 30 건강칼럼 칼슘가득 철분가득 입맛 돋우는 여름채소 Bayam

## 32 특별인터뷰 주영수 사모가 들려주는 한식세계화란 이런것

### 34 릴레이 인터뷰

- 5. 배형석 Nantoy Resources 대표이사
- 6. 박상순 한스네시아 법인장

## 38 6.25 60주년 특별기고 내가 겪은 6.25

## 40 재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기행문 공모전

## 41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기금 현황

## 42 유촌강의경정칼럼 지상의 방 한 칸

## 44 인도네시아 헤리티지소사이어티 소식

## 45 이달의 시 NuArt Sculpture Park

## 46 문화칼럼,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 실재 2 미리어 문화

## 48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세계에서 가장 노명된 인도네시아 찌따롱강

## 51 평통광장

## 54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 57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도서 **W**

## 58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4 모니터와 해상도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토지(부동산)법

## 65 와칭코리아

## 68 BOOKS

## 70 MOVIES

## 71 생활정보 가이드

## 76 6월 공지사항

48



45

# 신임 회장단에게 바란다

김문환 / 논설위원



지난 5월호 <한인뉴스> 지에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한인회’와 ‘상공회의소’의 신임 회장단이 산뜻한 지면 시각효과와 조화되어 화사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한인회와는 달리 그 조직의 존재감만 있었지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상공회의소의 조직도가 눈에 들어차면서 마치 연합함대의 위용을 보는 듯 하다.

1972년에 결성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1986년까지 초대 최계월 회장, 1991년까지 신교환 회장, 그리고 그 이후 승은호 회장께서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한인회가 결성된 이후 38년 동안 역대 회장이 위에 언급한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만큼 한인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도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필자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다른 한인회에 비해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는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본 적은 없다. 다만 미주 쪽의 몇몇 한인회는 분란의 정도가 도를 넘어 한인사회가 분열되거나, 동남아의 인근 어느 한인회장은 자격상의 하자가 들통나 중도 하차했다는 등의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정도이다. 다행스럽게 우리

한인회는 그런 분규를 겪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대 한인 회장들은 당시의 한인 대표기업의 사주이거나 또는 신망 받는 원로로서 한인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존경 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이같이 안정된 한인사회를 이끌어 온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 최초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인 한국남방개발 주식회사가 이곳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1968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벌써 42년이요, 또는 태평양전쟁 당시의 한국인 징용자들이 귀국선을 타기 직전인 1945년 9월 1일 자카르타에서 결성하였던 ‘재자와조선인민회’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65년이라는 한인사의 족적을 읽을 수 있다. 초창기에 한가족 같은 한인사의 규모가 최근에 들어서서는 3만 5천이니 4만이니 하고 설왕설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상전벽해의 변화를 타고온 셈이다. 최근엔 포항제철, 롯데 그룹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곳에 발을 내디딘다 하니 한인회는 규모면에서 가일층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에 걸맞게 현지인이나 여타 외국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한인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한인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험난한 산을 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무지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아직도 간간히 재발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밀수에 연루되거나, 노사분규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골프장에서 현지들에게 또다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등의 고전적인 사건, 사고 소식들이 반복되어 들려오고 있다.

마약 출발한 한인회에 바라건데, 이제 한인회의 기능은 문제가 터지면 이를 수습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인매체 또는 이벤트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역사, 문화의식 고취 운동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성될 수 있는 분과행위가 잉태되지 않도록 화합차원의 인사와 정책을 시현하여야 할 것이다. 조만간 시행될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이미 이러한 균열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인사회의 음지와 소외된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배려가 요구되기도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이 위협받는 한국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격리된 한국인 2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사회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니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한인회가 간여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이상 열거한 현안들은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이슈일 뿐,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한인회나 상공회의소는 사전예방적인 조치와 더불어 한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한인회로 변신하여야 한다면, 이는 급변하는 시대의 소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는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싱크탱크 기능을 통해 오래 전부터 구상단계에 머물 뿐,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인사의 정립’ 같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27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 한인상공회의소, 금년도 발전로드맵 논의

- KOCHAM-대사관-KOTRA 유기적 협력관계 강조
- 대외적 명칭을 'KOCHAM'으로 합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상공인 중심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승은호, 이하 KOCHAM/코참)가 올해 사업계획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7일(목) KOCHAM은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김남규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관장, 한인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KOCHAM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송창근 KOCHAM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까지 KOCHAM의 주된 활동은 한인회 상공분과위원회 소속의 대정부활동에 국한되었지만 금년 대대적인 조직확대를 시작으로 한인상공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KOCHAM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KOCHAM은 ▲월1회 정례 조찬간담회 ▲한인상공인 교류행사 ▲한인기업디렉토리 발간 ▲대정부 간담회 분기별 개최 ▲대사관, KOTRA와 협력 ▲재인니 타국상공회의소와 협력체제 구축 ▲KOCHAM 인력확충 ▲유명인사초청 강연 등에 대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제화시대에 맞춰 대외적으로는 상공회의소

명칭을 'KOCHAM'으로 통일 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KOCHAM은 대사관 및 KOTRA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작성 ▲노동법, 투자법 책자 공동 발간 등을 시작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사관과 KOTRA는 KOCHAM 역할의 역할에 대한 상공인들의 기대치는 높은 반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사실이라며 KOCHAM 사업비 및 조직의 원만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남규 상무관은 “올해부터 지식경제부에서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작성을 통해 각 체류국의 한국기업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 후 각국 정부에 건의, 한인기업사업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KOCHAM의 역할을 기대했다. 김 상무관은 보고서 작성의 최종 목표는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 및 상의(상공회의소)의 위상 제고’에 있다면서 투자 애로사항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간담회 및 법령검토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 KOTRA에 의해 수행되지만 인니 민간한인상공인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작업 수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2천여 한인영혼 위령탑, 수라바야에 건립

- 한국과 인니 양국은 일제하 슬픈 과거 극복하고 우호 증진 다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외최초 위령탑이 인도네시아에 건립됐다. 지난 5월 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최초의 평화공원과 위령탑 제막식 행사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 밤방데위 하르또노 수라바야시장, 정선택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 위원장, 임택선 수라바야한인회 회장, 수라바야 주정부 관계자와 수라바야 현지인, 한인동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원 개막식과 겸한 탑 제막식은 양국이 일본 지배로 피해를 입은 슬픈 역사를 극복하고 한국-인도네시아 우호관계증진을 위해 2,800 제곱미터 규모에 ‘한국-인도네시아 평화공원’을 건설하고 그 안에 ‘평화기원의 탑’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했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 정선택 위원장은 “2차 대전 기간 중에 약 2천여 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강제동원 기간 중에 희생돼 처음으로 건립된 이 추모비가 앞으로 필리핀과 나아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밤방데위 하르또노 수라바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인니 관계가 매우 좋아서 기쁘다.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평화에 대한 이해를 추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은 좋은 일이며, 친교 기념비는 평화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또는 정부와 정부 관계를 맺게 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택선 수라바야 동부자바 한인회장은 “이 탑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제 2의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라바야 시 당국 지원 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한인회가 공동으로 건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40년대 일어났던 태평양전쟁 당시 인도네시아에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포로감시원으로 생활했던 한민족 2,237명이 이곳에서 희생됐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암본에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폭격에 맞아 숨졌다. 또 일부는 전쟁이 끝난 뒤 현지주민의 오해로 인해 처벌받기도 했다.

진상규명 위원회는 “동부 해역에 가까운 수라바야에 추모탑을 건립하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4월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수라바야를 방문한 위원회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인협회, 출범 후 첫 시낭송회 개최

- '문학과 음악으로 만나는 고향' 주제로 교민과 함께 향수 나누

한인사회 문화의 가교가 되고자 올해 새롭게 출범한 재인니한인문인협회(회장 한상재, 이하 문인협회)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학과 음악으로 만나는 고향』이라는 주제로 교민들과의 첫 공식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 1일 자카르타 연합교회의 갈릴리홀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문인협회 12명의 회원들이 손수 창작한 시와 산문을 낭독하며 사시사철 아름다움이 피고지는 고국 땅과 눈감으면 선한 고향의 부모형제를 향한 애뜻한 마음을 한울 한울 글속에 담아냈다.

작은 배(1991), 창 너머 길(2002), 그는 물가에 있다(2008)등 1991년 등단 후 6권의 시집을 내고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발한 문필활동 중인 박정자 시인은 이날 어릴 적 고향에 대한 애뜻한 향수를 어느 프로 나레이터를 뛰어넘는 호

소력 있는 목소리로 자작시인 '문'을 낭송해 자리를 함께한 200여명의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문인협회 회원들의 시 낭송 사이사이엔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영희(소프라노), 배부일(테너),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 색소폰연주회, 김다빈(피아노)씨 등 음악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청중들의 향수를 더욱더 자극했고 교민들이 반응은 기대이상으로 큰 환호와 박수로 대담했다.

한상재 문인협회 회장은 “걱정과 우려, 또 기대 속에 시작된 문인협회는 인도네시아 나그네 생활속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며 교민 모두가 참여하여 문집도 내고 시상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다”며 “문인협회를 통해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놀라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인 첫 청소년 오케스트라 HJYO, 성공적인 연주회로 교민사회 데뷔

뜻밖의 젊음으로 가득 한 해피 자카르타 청소년 오케스트라(HJYO)가 지난 16일 창단연주회를 갖고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HJYO(지휘자 신정일)는 우스마르 이스마일 홀을 찾은 400여 명의 교민에게 하이든의 군대교향곡으로 시작해 가스펠과 모차르트 교향곡등의 오케스트라 연주, 첼로 3중주, 클라리넷 5중주와 플룻 4중주와 현악 앙상블 등 아름답고 담백한 선율을 선사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2009년 9월에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교민자녀 중 7~12학년 학생들로 음악 전공도가 아닌 학생들이 8개월여를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연습해 이날 무대에 올랐다.

HJYO는 트럼펫의 진군신호와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등의 군악용 타악기 연주가 인상적인 하이든의 군대교향곡 2악장으로 막을 연 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주 품에’, ‘누군가 널 위하여’ 등의 복음성가를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 연주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곡으로 클라리넷 5중주, 애시바허 곡으로 첼로 3중주, 파헬렐 곡으로 플룻 4중주를 수줍게 연주했고, 현악앙상블과 피아노가 엘

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주었다.

바탕 상의를 맞춰 입은 HJYO는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2악장과 ‘모짜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 연주로 간결하고 깔끔하게 공연을 마무리 했다.

HJYO 데뷔연주회는 아름다우면서도 귀에 익은 곡들을 선곡해 관객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게 했고, 객원연주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부족한 악기를 보충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 학생들의 첫 연주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또한 곡이 바뀔 때마다 간결한 해설을 삽입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한 교민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연주회였다고 평했다. 신정일 지휘자는 “앞으로 “HJYO는 한인공동체와 더불어 이곳 인도네시아까지 품고 나아갈 것이다. 현지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더 다양한 형태로 현지인들에게 음악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 다 같이 놀아보세 강강술래~

## 한바패, 신명나는 어버이날 한마당 개최

교민 사물놀이패인 한바패가 8일 오후 창단 두돌을 맞아 신명나는 어버이날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대강당에서 ‘어버이를 모시는 한바패 2돌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즐겁고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바패가 2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한껏 뽐냈으며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와 인도네시아대학교(UI), 나쇼날대학교(UNAS) 등 인도네시아 젊은이들과 합동공연해 의미를 더했다. 영남 사물놀이, 남사당 설장구, 필봉 설장구, 옷다리 사물놀이 등 지금까지 배우고 연습했던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바탕으로 각 지역 특색의 가락을 뽑아 공연해 다양한 우리 가락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무대였다.

장방식 한바패 회장은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한바패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회원모두가 일체가 돼 쉽지 않은 가락을 소화해 뿌듯하다”고 공연소감을 밝혔다.

우리 문화를 배우고 있는 UI, UNAS 학생들과 한사모 등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무용과 풍물놀이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반등에 본부를 둔 한사모 공연팀이 우아한 부채춤과 경쾌한 소고춤을 선보인 데 이어 ‘한사모 비보이’가 한바패의 가락에 맞춰 신명나는 무대를 장식했다.

한사모 회장인 리나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한국의 어버이날 행사에서 공연해 기쁘다”고 말했다.

장방식 한바패 회장의 지도를 받고 있는 UI와 UNAS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호남 좌도 임실 필봉 풍물놀이를 공연했다.

지난 1년여 동안 현지 대학생들에게 풍물놀이를 지도해 온 장 회장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 공부에 열의가 높다”며 “현지 대학교에 사물놀이 동아리를 더 만들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한마음노인대학의 어머니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 민요를 불렀고,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축하 노래를 불러 진정한 가족잔치 한마당이 됐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관객과 출연자가 무대 앞에 함께 어우러져 손을 잡고 빙빙 돌며 “다 같이 놀아보세. 강강술래~”를 노래하며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 사진작가 김세영 씨 국내외 풍경 170점 선보여

- 일상 속 '천상의 기쁨' 교민과 나누고 싶어
- 판매 수익금 전액 자선사업 기탁

자바의 풍광과 노르웨이 협곡 사진들을 통해 창조주의 경이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반추해볼 수 있는 김세영 자선사진전이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 대사관저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원로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김세영씨가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카르타 한인성당 산하 자선단체 '작은 꽃송이회'와 고려대학교 인도네시아 교우회와 함께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김 작가가 지난 5년여 동안 국내외를 여행하며 찍은 170여 점의 사진으로, 그는 “사진 제목 뒤에 각자의 말을 붙여보십시오”라며 낙엽, 꽃, 나무, 산, 구름, 폭포, 사막, 여명 그리고 황혼 등의 사진을 통해 관람객에게 화두를 건넸다.

김 작가는 “나 혼자 조용히 도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돕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한 행사”라고 네 번째 개인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1970년대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김세영씨는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카메라 렌즈에 이국의 경이로운 풍광과 일상을 담아왔다.

이번에 작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작은 꽃송이회를 통해 메단 소재 한국인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공부방 운영비용 그리고 양로원과 진료소 건립 비용으로 사용된다.

김 작가는 “오랫동안 조용히 인도네시아 미혼모, 정신장애아, 고아원, 메단의 고아원 등을 돕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따뜻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쁜 일상에서 흩어 버리는 천상의 기쁨을 사진을 통해 조금이라도 교민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 굿네이버스,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초등학교 재건축 착수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지부(현지법인명: Gugah Nurani Indonesia)는 5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서부 수마트라 지진으로 무너진 빠당 빠리아만(Padang Pariaman, Sumatera Barat)군의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SDN 09 Batang Gasan) 재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빠당 빠리아만군 교육청 관계자, 바탕가산 공무원, 지역 사회 리더, 바탕가산 제9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에 교실 3개, 교무실 1개, 도서실 1개, 다목적홀 1개, 컴퓨터실 1개를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아직도 작년 지진으로 인해 빠당 빠리아만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임시 건물에서 공부하거나 무너진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운데 KOICA와 굿네이버스의 도움으로 바탕가산 제9 초등학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굿네이버스는 또한 이번 KOICA의 지원으로 학교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진피해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원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빠당 빠리아만 지역 4곳 초등학교, 빠당 지역 20곳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는 특별해’, ‘마을사랑하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미술활동,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학습욕구 증진을 돕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KOICA 사업을 통해서 바탕가산 제9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빠당 지역의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새로운 배움과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안선근 씨 박사학위 취득

- '한국에서의 이슬람 전파와 발전' 논문 발표

교민 안선근 씨가 지난 5월 17일 명문 국립대학 UIN(Universitas Islam Negeri)에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안선근 씨는 지난 3년간 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한국에서의 이슬람 전파와 발전'이라는 논문을 준비했다.

이날 안선근 씨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지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공개논문심사를 받

았으며 심사교수 6명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처 있고 명료하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UIN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될 그는 "오는 7월 학위를 취득한 후 이 대학의 국제협력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관계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다문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가 10여명에 이른다. 교육과정 대부분이 인성교육을 함께 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학부모와 고학년을 위한 중국어반도 운영한다.

반동에서 10년 정도 거주 하고 계신 반동 토박이인 최순옥 교감 선생님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김재용 한인회장이 교장 선생님을 맡고 있다.

최순옥 교감선생님은 "반동의 교민수는 증가 하나 외국인 학교 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문화적으로 외국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10여명의 선생님들이 봉사를 한다."고 했다.

"시설공간과 선생님 부족으로 현재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2학년까지 6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재정확보와 선생님들의 충원이 이루어 지면 고학년까지 학급수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반동 한글학교는 한글을 배우는 장소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장소이며, 일주일에 닷새 동안 외국인 학교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며 지내다가, 매주 토요일 같은 얼굴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 우리말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주소: JL.Setrasari Kulon 1 No.3 Sukasari Bandung  
전화: 022-300-6880  
팩스: 022-201-2671  
교감 선생님 최순옥 0815-7319-8220



〈평통회원들이 ‘대북정세 안보 간담회’ 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천안함 사태 계기로 안보의식 강화해야”

- 민주평통 인니지회 ‘대북정세 안보 간담회’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인도네시아지회(회장 김광현)가 지난 5월19일 대사관 회의실에서 ‘대북정세 안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서 대사관 관계자는 “정부가 사고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로 만반의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교민들도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평통위원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교민들이 안보의식을 새롭게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평통 인니지회장은 제14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해 사업실적과 내년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평통 인니지회는 지난 1년 동안 빠당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 건국61주년 국민통합 주장말하기 및 글짓기 대회 개최, 밥퍼봉사활동, 천안함 성금모금 등 사업을 시행했다.

향후 1년간 평통 인니지회는 현지인 불우이웃돕기, 인니 4개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대상 글짓기 및 말하기 대회, 한국 북한학과 교수초빙 간담회, 한국학교 및 한

글학교 대상 주장말하기 및 글짓기 대회, 한국교민(성인) 대상 통일에 대한 수필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민주평통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월 57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통은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과 구조 중 순직한 군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고,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평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지를 군사적, 경제적 도발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만행과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국내외 친북세력의 준동을 규탄했다.

김광현 회장은 “국가안보와 나라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가정과 가족의 사랑을 지키기 어렵다”며 교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 한마음 잇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 천안함 사태 민주평통 성명서 전문

오늘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된 천안함 피격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우리 민주평통 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침착하고 과학적인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가 국제사회에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민족적인 군사적 공격이었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우리 해군장병과 전우들의 구조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다 순직한 군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김정일 도당의 호전적 도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또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며, 그들의 도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휴전 후 북한이 저질러 온 청와대 습격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탄테러사건과 저들이 도발한 수차례의 서해해전등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마침내는 천안함을 공격함으로써 드러난,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통분의 공감함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는 우리의 영토와 군과 국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재

발방지의 전략을 개발, 실천하는 것이 민주적인 평화통일의 첩경임을 깨달아 이에 성명한다.

하나. 북한의 만행과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국내외의 집단들의 반인륜적 언행과 폭거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 우리는 한국정부의 모든 사후 조치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지지하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의 그날까지 앞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

셋.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나 타당한 논리를 무시하고, 북한 김정일 도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내외의 친북세력의 준동을 규탄한다.

넷. 미국정부는 동맹국 한국의 피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번 천안함 피격을 중대한 도발로 선언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섯. 한국정부는 북한이 최근 저지른 군사적, 경제적 도발을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보장 받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평통인니지회

### 동포 안내문

## 천안함 사건 관련, 신변안전 유의

1.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5.20(목) 12:00부로 테러경보(총 4단계)를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조정 발령 한 바 있습니다.
2.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북한 식당 출입을 삼가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접촉 및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북한에 의한 테러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관련 징후를 인지할 경우 대사관측에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당직전화 : 0811-852-446)



## 봉제협회, 2010년 회원사 주소록 발간

- 순수봉제 222개사, 협력 97개사
- 2007년 비해 90개 회원사 늘어

재인도네시아한인봉제협회(회장 배도운, 이하 봉제협)가 6월 봉제협 회원사의 주소록을 담은 책자인 KOGA Member 2010을 발간했다. 금번 발간은 2007년 이후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3년 동안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금번 봉제협 주소록에 수록된 총 회원사는 317(봉제 222개사, 협력업체 95개사)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27개 업체에 비해 90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봉제제조업을 위한 적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소록은 구성에 있어 신경 쓴 점이 눈길을 끈다. 각 지역별로 순수봉제업체(봉제)와 협력업체(비봉제)를 구분해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업체별 한국인 수, 현지인 수를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바이어 Factory Evaluation AUDIT 참고자료 등 기존의 부록에 ▲국제임가공비 부가세영세율법안 시행령 한글 번역본 ▲인도네시아 노동법 사례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기한부 고용계약(PKWT) 등 유용한 현지정보들을 실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왔다.

이병수 봉제협 사무총장은 “금번 주소록 발간에 많은 업체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주소록 업데이트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이병수 사무총장  
(HP: 0816-181-3615, E-mail: hatibaru@naver.com)

### ■ 2010 봉제협 회원사 현황

지역	구분	업체수
전체	전체	317
	봉제	222
	비봉제	95
Jakarta & KBN	전체	66
	봉제	40
	비봉제	26
Bekasi, Cibitung, Cikarang	전체	50
	봉제	22
	비봉제	28
Bogor	전체	59
	봉제	52
	비봉제	7
KAPUSU & Bandung	전체	44
	봉제	38
	비봉제	6
Semarang	전체	21
	봉제	17
	비봉제	4
Sukabumi	전체	36
	봉제	35
	비봉제	1
Tangerang	전체	41
	봉제	18
	비봉제	23





## 대한민국 대검찰청, 선진마약수사기법 노하우 인니에 전수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 (BNN) 마약수사전문가 검찰수사관 파견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수사기법 등 마약퇴치 기술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전수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조영곤)는 지난 4월 6일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BNN)내에 마약퇴치국제협력사무소(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LOICOG)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마약수사전문가 2명(검찰수사관 이승재, 이익노)을 파견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약 1년간 상주하면서 현지 실정에 맞는 마약수사 지원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최신 마약수사기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 특별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양귀비 대규모 재배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라오스·미얀마·태국) 및 주변국가의 마약통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시행 첫 해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

년 캄보디아·베트남, 2009년 필리핀에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5월 중순경 인도네시아 BNN소속 마약수사관 및 마약감식관을 국내로 초청하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치해 디지털증거분석기법, 감식기법, 수사기법 등 첨단 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와 협력하여 마약퇴치 공동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종전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어왔지만 2008년 이후 동남아 국가에서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국제거래조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논설위원 김문환 씨 인니 현대사 강의에 교민들 큰 관심 보여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이하 인문연)은 지난 5월 15일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을 초청, ‘굴곡의 역사: 제 1,2대 대통령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화’ 중 제 1편 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을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다.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강좌 ‘인도네시아 독립 및 그 이후 혼란의 현대사’에 5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인니 현대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문환 논설위원은 350여년 이어진 식민 통치 말미에 국가이념인 Pancasila(판카실라)를 제안하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을 주도한 수까르노와 기타 주변인물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주요 사건 등을 통해 인니 국가성립과 정체성의 태동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참석한 교민 김현준 씨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 진출 이후 이제 한국인은 인니 현지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했다. 지금 한인들은 인니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현지인들과 잘 소통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다음은 UI 석사과정 중인 김현준씨가 정리한 강의 내용이다.



### 굴곡의 역사 :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수까르노는 1901년 교사이던 부친과 발리 출신 어머니 사이의 외아들로 자바에서 출생하여, THB(반동공대 전신)를 졸업하였다.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과 타고난 웅변재능은 그를 독립운동으로 이끌어, 그는 당시 화란 식민주의에 대항해 조직적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1928년을 시작으로 수 차례 투옥되어, 10여년 가까운 유형생활과 인신구속을 당한 바 있다. 1942년 일본군 자바 진주 후, 그는 투쟁노선을 완전히 바꿔 일본통



치에 적극 협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수카르노를 식민통치를 위한 최고 고문관이자 선전원으로 삼는다. 일례로, 당시 일본군정 선전부는 매일 제작하던 인도네시아 식민홍보영화에 수카르노의 ‘노무자 동원촉구 스피치’ 등 그의 식민통치 협력연설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게재한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43년 9월 일본정부 초청으로 방일하여 천황으로부터 국가원수에 상응하는 예우와 천황훈장을 받고 돌아온다. 일제 패망이 길어진 1944년 9월, 그는 당시 고이소 일본 수상으로부터 ‘독립약속’을 받고, 1945년 3월 62명의 친일본계 인사로 구성된 BPUPKI(독립준비조사국) 위원으로, 8월에는

20명의 핵심 친일본계 인사로 구성된 PPKI(독립준비위원회)의 의장(부위원장은 하타)을 맡는다. 그러나, 8월 16일 일본통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해 온, 수카르니 등 일단의 청년그룹에 의해 납치된 뒤 마음을 바꾼다. 그는 일본과 합의된 일정을 버리고, 독자적인 독립선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1945년 8월 17일 자택에서 독립선언을 한다. 젊은 세대들은 극적이고 결렬한 언어의 구사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자극하고 폭동을 야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카르노는 두 문장으로 된 간단하고 온화한 선언서를 채택한다. (선언서를 작성한 곳은 현재 Museum Permusan Naskah Proklamasi로 Jl. Iman Bonjol No.1에 위치) 선언서는 수카르노와 하타 두 사람만이 서명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민이름으로 공표된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독립선언문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 선언서에 의해서 독립을 선언한다. 권력이양 등 제반문제는 양심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선언서는 수카르노 자신의 자택에서(Jalan Pegangsaan Timur No.56, Jakarta Pusat, 현재 Jalan Proklamasi No.1/ Soekarno Hatta Monu-

ment) 1945년 8월 17일 오전10시 낭독되며, 그는 초대 인도네시아 대통령(1945.8~1966.3)으로, 부통령 하타와 함께 취임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뒤이어 진주한 영국군 및 화란과의 3년 여에 걸친 독립전쟁을 통해, 1949년 12월 27일에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다.

독립과정에서 일본에 협력적이었던 수카르노를 위시한 친일본 그룹, 반일본 그룹, Darul Islam운동 등을 주도하며 순수 이슬람국가 건설을 지향해 온 이슬람그룹 등 다양한 세력 간의 조율과 통합을 통해, 하나의 화합된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가는 것은 (독립과정에서 도출된) 인도네시아의 현안이며 향후 과제가 되었다. Satu



Nusa, Satu Bangsa, Satu Bahasa 라는 구호에서 이들의 노력을 느껴볼 수 있다.

기록에 보면, 광복 직후, 김구 선생이 태극기를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보내주셔서 태극기가 인도네시아 하늘에 게양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1968년 한국남방개발 진출을 계기로 많은 기업과 교민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현재까지 이어져, 이제 한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써 당당히 성장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익숙해져 있어 안다고 믿고 있는 것’과 ‘정말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 하지 중장의 아이러니도 지나친 자신감과 무관심이 번질되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사공경 선생님이 이끌고 계신 인도네시아 문화연구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결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한인사회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더욱 계승 발전되기를 바란다.

## 경북 명품사과 ‘데일리’ 현지 시장 공략

경북의 수출형 사과인 ‘데일리’(DAILY)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푸드홀과 하이퍼마트 등 총 11개 매장에서 대구경북 능금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NH무역과 공동으로 데일리 수출촉진 활동을 펼쳤다.

행사가 열리는 푸드홀 등 각 매장에는 데일리가 전진 배치돼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시식한 고객들은 ‘달콤 새콤 맛있다’며 호평했다.

경북도의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데일리가 대만에 이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섰다”며 “일본 사과와 비교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데일리’를 현지 기관과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



몰 스냐안시티 지하에 위치한 푸드홀 매장에서 전면배치된 경북사과 ‘데일리’

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서병진 조합장은 “꺾질째 먹는 안심 사과”라는 데일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연간 사과 14만톤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의 고급 시

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는 사과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및 한인회 관계자를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갖고 명품사과 데일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명품 사과 ‘데일리’의 성공적인 현지 판촉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사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9쪽에서 이어짐) 모교에서의 교육 실습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11년도에는 위 대학의 예비 교사들 뿐 아니라 중앙대에서도 예비교사들이 파견되어 본교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과 지도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주 국어과 교사는 “제가 진행해오던 수업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교사로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고, 평소 JIKS 학생들이 가질 수 없었던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이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교육 실습의 의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흘간의 세븐헤빗 강의를 마친 수강자들이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멈추고 - 생각하고 - 선택하라**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 습관을 체득하고 삶과 조직에 적용하게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강의가 지난 5월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카르타 한인성당에서 열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프로그램은 미국의 프랭클린 코비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리더십센터가 공식 도입해 큰 호응 속에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5월28일부터 사흘간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렸고, 31일부터 사흘간은 학부모 그리고 6월 3일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강의의 퍼실리테이터(강사)인 이민정 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습관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습관을 지니면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묻고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사건을 조절(control)하게 된다. 성공하는 방향으로, 또는 실패하는 방향으로, 선택은 본인의 습관에 따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Stop(멈추고)-Think(생각하고)-Choose(선택하라)’함으로써 사건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하라고 제안했다.

수강자들은 이민정 교수의 강의를 들어본 지인의 권유나 이민정 교수의 저서 또는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읽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하루 8시간씩 사흘간의 강의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지난 1월에 딸과 함께 이민정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부모 김혜숙씨는 “대화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공감적 경청 태도를 적용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며 “남편에게도 이번 강의를 수강하도록 권했다”고 말했다.

이민정 교수는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 강사, 198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수석강사,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위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퍼실리테이터, 부모2.0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1,2>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부모들의 이야기 1,2>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 습관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등 다수 집필했다.

[제공: 데일리코리아]



## 초가을 날씨 속 유쾌한 한때 보낸

# 반동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반동한인회 (회장 김재용)는 지난 5월 20일 반동교민, 대사관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동인다 골프장에서 2010년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비행기 티켓 두장, LCD-TV, 그리고 골프용품 등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행운권 추첨과 우승 상금은 대회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한국의 초가을을 연상케 하는 반동 특유의 날씨속에서 치러진 이번 골프대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사전 티켓 판매와 샷건방식이 적용되었다.

모든 참가자가 라운딩을 끝낸 후 비가 내려, 상쾌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시상과 함께한 저녁 만찬은 교민들간에 담소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날 김재용 한인회장은 “반동교민기업들의 1억루피아 넘는 찬조금, 상품찬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반동 교민들의 관심과 격려에 반동한인회가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 반동 한인회는 교민화합과, 한글 교육등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베스트그로스 남자 신동천 사장, 여자 조이숙씨가 차지 하였다.



## 반동 한글학교는?

반동학급학교는 현재 한인회 사무실내 장소를 빌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한글교육과 기초적인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유치부,초등학교 한글반은 나이에 상관없이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한글의 이해력과 수준높은 언어 활용을 위해 한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음수련과 체력단련의 한 과정으로 태권도 교육을 하고 있다.





# 하나은행, 반등지점 오픈

대사관 오송 공사(맨왼쪽),  
반등한인회 김재용 회장(가운데),  
최창식 은행장 (우측 세번째) 및 고객대표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은행장 최창식)은 지난 5월 26일, 19호 지점인 반등 Surya Sumantri 지점의 개점식을 개최했다.

40여명의 반등 교민들이 참석한 금번 개점식에서, 반등한인회 김재용 회장은 축사에서 수르야 수만뜨리는 ‘많은 교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이라고 밝히며 1천여 반등 교민의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금번 반등 지역의 지점개설은 2008년 10월 수디르만 지점에 이은 두 번째 개점이다. 수디르만은 로컬고객 중심 지역으로, 교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반등 교민 고객의 접근성 및 편의를 고려하여 금번 수르야 수만뜨리에 지점을 개점하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수라바야 지점, 5월 반등 수르야 수만뜨리 지점의 개점을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7월 윌터르 몽인시디 지점의 개점을 앞두고 있다.

최창식 은행장은 ‘저희 하나은행은 로컬 은행과 차별화된 고객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등 교민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수르야 수만뜨리 영업점의 교민 서비스를 다짐했다.

**하나은행 Surya Sumantri 지점**  
Jl. Surya Sumantri, no.10C, Bandung, Jawa Barat  
Tel: 022-2002-177

## (16쪽에서 이어짐) 굿네이버스는

국제구호개발 NGO로서 1996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으며, 전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2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새천년개발목표상(MDGs Award)을 수상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5년 아체 지역의 쓰나미 긴급구호를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 지부를 설립하였다. 현재 자카르타, 아체의 물

라보·메단 사업장 및 작년 서부 수마트라 지진을 계기로 빠당 사업장을 오픈하여 네 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자카르타에서는 도시 빈곤 지역의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굿네이버스의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계좌명: Yayasan Gugah Nurani Indonesia)
- Bank BCA : 8310008282
- Bank Mandiri : 125-00-0989009-6
- 우리은행 : DDA913059369
- 기타문의전화: 021-4587-9412



## 축구팀, 자카르타 코카콜라컵서 당당히 우승

2010년 자카르타 코카콜라컵 리그에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축구팀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자카르타 내에 있는 16세 이하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리그로 우리학교에는 김태근 외 16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에 이르는 예선 경기를 자발적으로 준비해 온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자카르타에서 JIKS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JIS나 BIS와 같은 국제학교뿐 아니라 자카르타 내의 현지학교와의 경기 및 교류를 통해 축구 경기뿐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토,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며 매 경기 우승 소식을 전하던 JIKS의 축구팀이 우승 소식을 전하자, 대회에 참가하였던 축구 선수 뿐 아니라 학교와 교민들도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장 김태근 학생(JIKS 11학년)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선수 한명 한명이 최선을 다해 주어서 매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조실형 선생님과 Nick 선생님의 지도가 아니었으면 우승은 힘들었을 겁니다”라며 우승의 기쁨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도교사 조실형 선생님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기량을 연마하고 또 발휘해주어서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요즘 학생들은 신체적 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겁고 쾌활하고 건전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승의 기쁨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A그룹의 경기에 참가했던 A팀(이현석 외 15명) 역시 최선을 다해 4위라

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에 대해 골키퍼 조우철 학생은 “다소 아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보는 기회가 몹시 소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이 노력한 선배 및 후배들과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하면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꼭 더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라며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 부인회, 장학금 기증

지난 5월 12일 재인니한국부인회(Korea Women's Assosiation)가 JIKS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USD2,000-을 기증하였다. 매년 JIKS의 학생들을 위한 이 기금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지원되었다. 재인니한국부인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학생들이 큰 희망과 활력을 얻고 미래의 주인공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 롯데장학재단, 도서 1500권 기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책마루 도서관에 롯데 장학재단에서 2007년 2000권, 2008년 1300권, 2009년 1200권의 기증에 이어서 올해 1500여권의 책을 기증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롯데장학재단의 이근재이사님과 권오상부장님이 방문하여 직접 기증식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독서 교육을 중요시하시는 전호신 교장 선생님의 배려와 롯데장학재단의 지속적인 기증으로 현재 책마루 도서관의 장서는 3만3천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이해란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아이들의 어휘력과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 많아서 책마루 도서관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롯데장학재단의 도서 기증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책마루 도서관 사서 교사



김경희 선생님은 “매년 저희 학교에 도서를 기증해주는 롯데장학재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롯데장학재단에서 보내주시는 양서들로 인해 우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마음의 부자, 머리의 부자가 됨을 느낍니다. 귀한 도서 기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롯데 장학재단의 도서 기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 중앙대 및 한국 우수대학교들과 교생실습 MOU 맺어

지난 5월 24일(월)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가 중앙대학교와 교생 실습 건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년 고려대, 건국대, 공주대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의 교육실습생이, 2010년에는 고려대, 건국대, 상명대, 한양대에 재학 중인 7 명의 예비교사들이 JIKS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미선 씨는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청년층의 부재가 안타까웠는데, 교생 선생님들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JIKS에서 실시되는 교육실습에 대해 환영을 뜻을 비추었다. 현재 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교육실습생 윤지현 예비교사는 “인도네시아라는 먼 곳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모여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라는 곳에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하나 교생 선생님

서 교생실습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이다”라며 이번 교육 실습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JIKS 졸업생인 한솔 김경화 예비 교사는 “학창시절을 보낸 이곳에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강단에 서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후배들이자 제자들인 JIKS 학생들을 잊지 않고 자카르타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JIKS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고 (24쪽 하단으로 이어짐)



칼슘가득 철분가득  
입맛 돋우는 여름채소

# Bayam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주부들의 제일 걱정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과 다른 식문화, 처음 보는 채소들, 낯선 과일들.. 무엇을 어떻게 해먹어야 할지.. 처음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면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매 끼니를 사먹는 것도 그렇고 난생 처음보는 음식재료들로 만들어 먹기도 그렇고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먹는 것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딱 맞는 영양만점 채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슈퍼나 로컬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Bayam’이라는 야채입니다. Bayam은 꼭 시금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국의 시금치보다는 비름나물에 가까운 채소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도 국이나 각종 야채반찬으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봄나물의 향긋함이 생각날 때, 신선한 채소가 생각날 때 우리의 입맛에 딱인 Bayam입니다.

Bayam의 학명은 *Amaranthus mangostanus*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쌍떡잎식물 중심자목 비름과의 한 속에 속하였습니다.

원산지는 인도이며, 타이완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자라는 여름채소이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디서나 쉽게

구하여 먹을 수 있는 국민채소입니다.

비얌은 한의학적 명칭은 마치현(馬齒)입니다. 잎의 생김새가 말 이빨[馬齒] 같기 때문에 마치현이라고도 합니다. 성미는 맛은 시고 성질은 차며, 귀경으로는 수양명대장경, 족궤음간경, 족태음배경에 들어갑니다. 효능으로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산혈(散血)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열리농혈(熱痢膿血), 열림(熱淋), 혈림(血淋), 대하증, 조그마한 종기와 악창, 단독(丹毒), 나력을 치료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여러 가지 헌데와 악창을 낮게 하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징결을 해친다. 쇠붙이에 다쳐서 생긴 헌데와 속에 누공[漏]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갈증을 멎게 하며 여러 가지 벌레를 죽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얌의 생김새는 얼핏보면 시금치와 닮았습니다. 길이는 30~40cm정도에 길쭉길쭉 잘도 뻗었습니다. 아랫뿌리 부분은 약간 자주빛을 띠며 줄기를 따라 위로는 우리가 먹는 잎이 붙어있습니다. 잎 모양이 둥근 타원형으로 깎잎과 비슷하며 채소자체가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키는 50~1미터까지 자라납니다. 홀로 자라나는 바얌은 잎이 무성하고 크게 잘 자라나지만 보통 밭에서 자라거나 재배하는 경우는 줄기는 연약하고 잎도 연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바얌은 한국의 비름나물보다는 잎이 약간 큰 거 같기도 한데 보통 바얌을 먹을 때는 아래 줄기부분은 잘라내고 일부분을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뜰에서 나는 어린 순으로 나물을 해 먹는데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해서 장명채(長命菜)라고도 불립니다. 바얌을 여러개 보인다고 알잡아 보시면 안 되는 영양덩어리입니다.

바얌의 성분을 살펴보면 수분 89.5g, 단백질 3.5g, 당질 3.3g, 지질 0.5g, 섬유질 1.1g, 회분 2.1g, 칼슘 236mg, 나트륨 6mg, 칼륨 524mg, 비타민 A, B1, B2, C, 니아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시금치의 4배 이상, 철분은 1.1배, 비타민 A는 3배이상 들어있으며, 베타카로틴은 냉이보다 2배가 넘게 들어 있어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종기나 염증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나물 중에서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룬 채소입니다.

바얌의 효능을 살펴보면 어린 순을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의 공급은 물론, 냉한 성질로 인해 해열, 해독과 종기를 쉽게 아물게 하는 효과도 보게 되며, 생잎을 찢어서 뱀이나 벌레 물린데, 치질, 종기에도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다른 야채에 비해 높아 아이들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잎과 줄기를 전부 말리거나 씨를 말렸다가 달여 마시거나, 상처 난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물며, 씨는 설사를 멈추게 하고, 부종을 완화시키며, 생리불순을

치료하는데 효험이 있고, 약리실험에서 강심작용, 혈압상승작용, 억균작용, 자궁 수축작용, 지혈작용 등이 밝혀졌으며, 대장염의 예방치료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한성설사를 하는 사람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바얌의 구입요령은 잎이 두껍지 얇으면서 부드러운 것을 고르고 줄기 부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순을 국으로 끓이거나 살짝 데쳐 밥과 함께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웰빙식품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바얌을 가지고 주로 가도가도(Gado Gado)를 만들어 먹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야채 볶음, 각종 mie soup안에 넣어 먹습니다. 잎과 뿌리를 깨끗이 물에 씻은 다음 데쳐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주스 상태로 만들어 먹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출산 후 피를 맑게 해주며 혈압을 강하시켜 주는 작용도 있어서 애기를 낳은 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바얌으로 음식을 해 먹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이 많아 생리할 때 좋고, 당뇨 치료에 적합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유효하다하여 많이들 즐겨먹습니다.

바얌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효능 또한 훌륭하여 놓치기 쉬운 영양까지 챙겨주는 채소입니다. 철분, 칼슘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여자분들이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고루 갖춘 바얌. 더구나 냉한 성질로 인해 여름철 더위먹고 입맛 잃은 우리들에게 간편하고 쉽게 요리 할 수 있는 채소라 생각이 듭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특별 인터뷰

#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나요?

## 한식세계화 최일선 대사관저 주영수 사모가 들려주는 한식세계화란 이런 것.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음식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음식으로 상차림을 할 때, 우리 것을 처음 맛보는 외국인에게 어떻게 우리 음식의 인상을 심어줄까, 그것을 우선 생각하게 되지요.”

대사관저에서는 오늘도 만찬이 열린다. 분주하게 다이닝 룸과 주방을 오가며 테이블 세팅과 음식 준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시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부인 주영수님을 만났다. 바쁜 중에도 친절한 미소로 맞아 주신다. 그리고 사모님 특유의 나즈막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한식 세계화 지론이다. 궁금하다. 최 일선에서 한국문화를 홍보한다고 할 수 있는 관저에서는 어떻게 우리 음식을 대접하여 우리 음식의 첫인상을 좋게 하고 있을까?

“우리 음식 중에 대표적인 ‘잡채’의 예를 들어 볼게요. 잡채를 대접할 때, 저는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 방식대로 큰 접시에 담아 개인이 덜도록 할 때 길게 늘러지거나 떨어지는 고명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갖게 된다면 다시 그런 자리에서 잡채에 손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얇은 밀전병에 조금씩 잡채를 싸서 개인 접시에 놓아 대접한다면, 나이프와 포크로도 먹을 수 있어 보기도 먹기도 좋은 첫인상 좋은 잡채가 될 거예요.”

그렇다. 대화가 중요한 만찬 자리에서 길게 늘어진 잡채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그 인상이 오래 갈 것 같다. 사모님의 웃음 속에 바쁜 속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맛을 뛰어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에서의 만찬 속에 담긴 비결을 더 물어 볼 수 밖에 없었다.

### 관저에서의 한식 상차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때와 장소를 생각해서 옷을 선택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예쁜 옷이 있다 한 들 장소에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되지요. 상차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는 손님의 연령과 취향을 생각하고 모임의 성격을 생각해서 그들이 먹기 편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관저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인은 불고기, 삼계탕, 갈비탕 등을 좋아한다고 하며 한식을 코스로 상차림을 할 때의 숨은 노력은 이런 것들이라고 귀띔해 주신다.

- 전채요리는 예쁘고 먹기 좋게 준비한다.

첫 번 째 코스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것을 대접한다. 새우 무 초말이, 약식 구절판, 화양적 등을 각자의 접시에 한입 크기로 담아내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 본 요리도 개인이 덜기 좋게, 밑반찬도 개인 전용의 그릇에 담아 준비한다.

갈비찜도 1인분씩 싸놓아 덜어 가기 쉽도록 하고 너비아니 구이도 먼저 볶듯이 해 오븐에 살짝 익히면 질척하지 않아 개인이 큰 접시에서 덜어가기에 아주 좋다고 한다. 또한 김치나 튀각 등을 미리 조그만 개인 종지에 담아 대접하여 쉽게 손이 가고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다.

- 메뉴와 양을 조절하여 간소화 한다.

### 한식 디저트는 연구 과제

떡과 같이 배가 부르는 디저트 외에 상큼하게 식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디저트를 연구 중이라고 하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하신다. 그치지 않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식 재료는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사모님은 특별한 행사 때 보다는 슈퍼마켓이나 미트마켓에서 교민 누구와도 쉽게 마주친다. 손수 장을 보아야 신선하고 음식이 되어 나올 때 안심이 된다고 하며, 몇 인분의 양을 그램까지 챙긴다. 공간을 지키는 것은 안주인의 제일의 역할이라 한다. 그리고 보니 먼 곳 시장에서도 사모님을 만난 적도 있고, 관저에서 숨은 센스로 생화처럼 보이는 조화를 많이 발견했다.

### 한식의 세계화

지금 한국은 우리 음식의 우수성과, 파스한 정을 느끼게 해 주는 우리만의 식탁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운동이 한창이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해외에서 여러 행사를 기획하며 이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에도 자카르타에서 농수산부 주최 한국음식 페스티벌이 열려 성황리에 끝난 적이 있다. 지난 세대에 일본이 그들의 문화를 알리려 노력했었고 현대에 ‘스시’는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전세계의 외식 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우리 음식은 그 재료의 다양함과 조리의 복잡함, 그리고 진한 마늘 향 때문에 외국에서 마니아 층의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고정 관념을 깨고 정말 여러

가지 식재가 필요한 ‘비빔밥’이 외식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내식으로 등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재료와 조리의 복잡함이 갖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자 오히려 거기에서는 오는 다양한 영양소와 훌륭한 색깔으로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전에 인도네시아 푸드 스페셜리스트이며 한국 음식 홍보 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윌리엄 윈소’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한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현지화하려면 현지인이 한국식당을 열 수 있어야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동감했어요. 비싼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현지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우리 농산물이나 상품의 유통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주인이지만 또박 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을 뵙고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 음식이 인도네시아 족자에서도 말랑에서도 프칼롱안에서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다시 부르신다.

“케익을 예쁘게 대접할 때는 둥근 홀 케익 위에 있는 토핑을 건어 따로 놓아두어요. 그다음 1인분씩 깨끗이 잘라 개인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다시 토핑을 얹으면 아주 보기 좋은 케익이 될 거예요”

인터뷰, 임경애, APWINC 인도네시아 전문위원



# 좌충우돌 지난날 지금의 ‘나’ 만들어 인니 최고매력은 역시 ‘자원대국’

---

배형석 Nantoy Resources 대표이사

---

유난히 ‘~하더라’는 말이 많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분야,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부를 손에 쥌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을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쉽사리 ‘성공’의 열매를 할애하지 않는 분야, 바로 자원개발 관련사업이다. 어렵다는 자원개발 사업에 또한 문외한이었던 젊은 교민 배형석 씨(Nantoy Resources 대표이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1975년 부친을 따라 인도네시아 오게 된 배형석씨는 미국과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쳤다. 외교관이 되길 바라는 집안의 분위기로 인해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 이지만 졸업 후 그의 여정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배형석씨는 94년 ㈜대우에 취직, 미국 및 유럽 자동차 수출기획업무를 경험했다. 그 후 미국의 기획 경영 컨설팅업체인 Coopers & Lybrand에 스카우트 돼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컨설턴트로서 활동 중, 컨설턴트로서 경영상의 논리와 이론을 제안하지만 실행경험의 부족에 주목하고 현실과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1998년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한국신발업체에서 신발생산제조업을 배운 뒤 태국의 타신발 생산 업체에서 상무이사로 2006년까지 재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 다시 귀향하게 된 배형석씨의 결정적 동기는 한국보다 더욱 고향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인도네시아 이었고, ‘세계5대 자원보유국’으로서의 매력적인 잠재력을 지닌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석탄개발 회사인 Nantoy Resource를 설립하게 되며, (주)한화의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석탄 탄광 개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무궁한 자연자원을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매력으로 보며 자원개발업 특히 석탄 개발 업무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 이런 흥미를 갖게 된 동기엔



어렸을 적 보아왔던 부친의 모습이 있었다. 2005년부터 석탄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친을 따라 여러 현장들을 경험하게 된 그에게 석탄개발과 관련된 풍경은 친근한 대상이 되었다.

배형석 씨는 현재 깔리만판에서 광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자원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실패확률이 높은 분야인건 사실이지만 체계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예상했던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는 광산권 취득에서, 매장량 확인, 인프라 건설 후 생산 및 판매로 이뤄지는 순서가 사업상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겠지만, 프로젝트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업무과정 중 등장할 수 있는 M&A의 가능성 등 여러 경영옵션들의 발생에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한 거대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개인사업 Developer로서 투자자 유치나 컨소시엄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고 한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석탄개발의 성공을 확신하며 향후 2~3개의 광구를 더 개발할 계획이다.



그는 회사 내 외부 업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주가 모든 사업을 직접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는 우선 회사 내 직원들간의 조직적인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산업은 현장과 본사 간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작은 실수에서도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과정 중 광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외, 대정부,군,경찰,주민 등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훨씬 상회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의 일상적인 업무의 상당부분이 정부관료, 현장 군 소재지의 개발업무 팀들과의 조율회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조율 업무에 과거 그가 기획자로서, 컨설턴트로서, 제조업 담당자로서의 배우고 경험했던 각 영역별 산업의 특수성과 상호보완점들에 관한 경험들이 이 업무에 상당한 효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배형석씨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또한 Just do it! 저질러 보자는 천성적인 도전정신이 불가능이란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는 신 광업법 발효 이후 내국인에 한해 주어졌던 광구소유권(KP)이 외국자본으로도 확대 되면서 법적, 행정적 투명성이 높아진 점은 분명 자원개발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신규 광업법이 아직 규정하지 못하는 여러 불확실성 또한 리스크 요소로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사업에 뛰어든 한인업체들의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가 절실하다고 한다. 좌충우돌 다양한 경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지내는 그가 과학적 접근과 올바른 과정을 밟아 멋진 성공신화를 일궈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한인기업들의 상생을 위한 멋진 '조율자'가 되어 주길 바래본다.

**성명** 배형석

**출생년도/출생지** 1968년/서울

**회사** Nantoy Resource

**업종** 자원개발

**직책** 대표이사

**전화** +62-21-5794-8022

**이메일** hsbae@nantoyresources.com

**가족사항** 부인, 1남 1녀

**종교** 천주교

**혈액형** B형

**흡연/주량** 흡연/소주 2병

**취미** 컴퓨터, 얼리어답터, 축구

**존경하는 인물** 박정희 전대통령

**좌우명** Just do it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잡 단순



# 난 반제품. 더욱 가꿔 완성품으로 만든다.

---

**박 상 순** 한스네시아 법인장

---

30대 약관의 나이 중견 기업 총괄책임자 되다.

박상순 씨는 14년 전인 1996년 영업사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주재한 한스네시아에 파견되어 나왔다. 그에게 한스네시아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의무를 다하고 스물 다섯의 나이에 얻게 된 첫 직장이었다. 그 후 그에게 인도네시아는 지금 삶의 터전이고 제2의 고향이 되었다.

5년 전부터 그는 본사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아 서른 넷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한스네시아 총괄책임자 즉 법인장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그가 30대에 법인장이 됐다는 것은 인니 한인기업들 내에선 상당히 드문 일임에 틀림없다.

그는 아침 출근 후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은행업무 체크, 영업부 및 총무부의 업무 조율 등으로 그의 평범한 하루 업무는 끝이 난다. 그리고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갖거나 일찍 귀가한다. 보통의 회사원과 다름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인정받는 경영인으로 만들었을까? 그와의 짧은 인터뷰, 하지만 녹록치 않은 평범한 진리를 알아챌 수가 있었다.

큰 덩치에서 나오는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인터뷰 시 풍겨나는 그의 인상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물씬 묻어났다.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은 주저하지만 사람들과 목적 없이 만나 평범히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하며 어울리는 것만은 무척



좋아한다는 그는 그래서 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주이다. 그런 그의 태도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그의 입장보다 직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 본사의 경영방침과 좀 다르더라도 중간에서 조율해 가며 상호간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신통력(?)을 발휘, 결국(?) 직원들이 맡은 바 의무에 충실케 한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직률도 적어 14년 동안 같이 한 직원들도 몇이나 된다.

제지업으로 출발해 봉제, 직물, 염색 그리고 자동차 관련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버젓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한서실업이 바로 한스네시아의 모기업이다.



**성명** 박상순

**출생년도/출생지** 1972년/서울

**회사** PT. Hansnesia

**업종** 섬유 염색

**직책** 법인장

**전화** +62-21-440-4141

**이메일** sang@hansnesia.com

**기혼/가족사항** 미혼

**종교** 천주교

**혈액형** B형

**흡연/주량** 비흡연/소주 1병

**취미** 컴퓨터, 얼리어답터, 축구

**존경하는 인물** 전 삼성회장 이병철

**좌우명** 남에게 피해주지 말며 살자

그 중 염색 가공 영역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스네시아는 직원 150명 (한국인5명)과 연 매출 1,1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성장을 거듭해 한서실업을 이끌어 가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중심에 있다.

평균 한 시간의 출근거리를 지나 남들보다 한발 앞선 오전 7시 회사에 발을 디더 현지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을 잘 ‘보필’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그는 한국인과 현지인 직원들간의 불협화음 없이 회사를 이끌어 온 점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도 잘하고 있는 점 즉 그만의 성공사려라 꼽았다.

하지만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은 법, 지난 2007년 2월 자카르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한스네시아도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다. 1미터 넘게 잠겨버린 회사, 핵심원자재들이 모두 침수 되어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날. 하지만 당시 한인사회 각계 각층의 수재의연금 모금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최악’의 피해를 입게 된 그의 회사는 작지만 정성이 깃든 재해복구기금을 수혜 받게 된 행운(?)의 회사가 되었다. 수마가 지나간 폐허가 된 공장 곳곳을 일주일간 직원들과의 사투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날을 회상하며 그는 내 일 같이 함께 해준 직원들과 한인사회에 결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그는 자신을 계속 가꾸어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야 할 반제품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

# 내가 겪은 6.25.

올해는 한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을 맞았던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져 휴전이라는 긴장감속에 기약없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가족과의 조우를 바라며 눈물로 수십년을 지새우고 있는 이산가족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6.25는 우리에게 있어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우리 교민들 중에도 6.25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60년이 되는 이날 교민 이승민 씨가 직접 겪었던 6.25를 연재하며 그날의 현실을 다시 기억했으면 한다. -편집자 주-

<글: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난리가 났단다” 그 날은 비가 와서 마당이 질퍽한 날이었다. 젖은 마당이 밟아도 땅가지지 않도록 마당에 보릿대를 깔아 놓은 큰집에 갔다가 동네에 하나 밖에 없는 큰집 제니스(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큰 어머니가 “난리가 났단다”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난리라는 어려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7살짜리 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난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총으로 서로 죽이는 큰 싸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난리가 나면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시면서 해방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난리가 났느냐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아야 할텐데 하시며 걱정을 하셨다. 경찰 파출소가 있는 압해도 외가에 가서 순경 아저씨의 총을 만져본 경험이 있는지라 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총이 무엇을 하는 연장인지 설명을 들어 알고 있는 터라 난리가 났다는 어른들의 말이 내 나름대로 이해가 갔다. 큰집 제니스라디오에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들으신 날부터 할머니는 “어쩔거나 우리 아들들” 하시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셨고 “군대 간 아들들 생각이 나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 간다” 말씀하시고 밥을 드시다 말고 밥수저를 내려놓고 들로 나가시곤 하셨다. 할머니, 어머니, 나보다 3살 위인 고모, 나와 갓 돌이 지난 여동생, 이렇게 5명 식구가 사는

우리 집 분위기는 바위처럼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목포에서 일을 하시면서 토요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집에 오시던 아버지와 막내 삼촌의 발길이 끊겼다. 난리가 났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은 지 한 참 지난 어느 날 할머니와 어머니는 들에 나가시고 고모는 작은 옹기를 머리에 이고 동네 새 샘에 물 길러 가고 갓 돌이 지난 여동생과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물을 덮은 모자를 쓴 군인이 칼이 꼽힌 총구를 우리를 향하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고 뒤따라서 도깨비 귀처럼 쫓깃한 귀가 달린 무섭게 생긴 검은 색 개를 데리고 검은 가죽 권총집에 꼽힌 권총을 허리에 찬 다른 군인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 닦쳤다. 총에 꼽힌 날카로운 칼도 무서웠고 까만 개도 무서웠다. 동네에서 기르는 개하고는 전혀 다르게 검은 색깔에 그렇게 무섭게 생기는 생전 처음 보는 개가 혀를 내밀고 짹짹거리며 무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봐서 마루로 뛰어 올라와서 물면 어찌나 겁이 났었다. 앞서 들어온 군인은 칼이 꼽힌 총구를 우리를 향하고 두 팔로 총을 쥐고 마당 한 가운데 버티어 서고 개 줄을 잡고 있는 군인이 마루에 앉아 있는 우리 앞으로 닦아 와서 엄한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집에 누가 있냐? 나하고 동생이랑 있어라우, 니네 아버지는 어디 갔냐? 목포서 안 왔어라우, 군인 삼촌은 어디 있냐? 나는 몰라라우, 언제 왔었냐? 한 번도



안 왔어라우, 해군 삼촌은 어디 있냐? 나는 몰라라우, 언제 왔었냐? 한 번도 안 왔어라우, 목포 삼촌들은 어디 있냐? 나는 몰라라우, 니네 어매와 할매는 어디 있냐? 밭에 갔어라우, 누구 누구 집에 사냐? 어매하고 할매하고 고모하고 나하고 동생이랑 살어라우에” 권총을 찬 군인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물었고 착용된 총을 우리를 향해 쥐고 있는 군인은 우리를 주시하면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기도 했다. 나는 군인의 얼굴과 무섭게 생긴 까만 개를 번갈아 보면서 겁에 질린 상태로 허리에 권총을 찬 군인이 물어 보는 대로 모두 대답을 했다. 군인은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했다. 질문을 해도 자기가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개 줄을 잡은 군인은 묻는 것을 멈추고 마루 끝에 걸터앉으면서 마루에 앉아있는 돌이 지났으나 머리카락 수가 적은 내 여동생에게 “꼭 다마내기 (양파)같이 생겼네” 말하면서 시선이 나에게로부터 내 동생에게 갔다가 우리 집 마루 선반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착용된 총을 쥐고 마당 한 가운데 서있는 군인에게 눈짓을 하니 착용된 총을 잡은 군인이 앞으로 걸어 와서 총을 마루 끝에 기대어 놓더니 신발을 신은 채 마루에 올라와 선반에 놓여 있는 아버지의 목이 긴 농구화 두 켤레를 내렸고 다시 마당 빨래 줄에 걸려 있는 양말 두 켤레를 걷어 내렸다. 농구화 두 켤레와 양말 두 켤레를 낀 군인이 총을 어깨에 둘러메자 개 줄을 잡은 군인이 마루 끝에서 일어나면서 “니네 아버지하고 삼촌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간께 니네 아버지나 삼촌이 오면 인민위원회로 나오라고 해라” 다시 엄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야, 알랐어라우”하고 나는 대답을 했고 군인 두 명은 개와 함께 우리 집을 빠져 나갔다. 인민군 두 명과 7살짜리 어린이의 대화 광경을 뒷집 방월이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담장 넘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방월이 어머니 입을 통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인민군 두 명이 총을 겨누고 물었으나 어린 것이 겁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더라. 초남씨 큰 아들은 겁이 없는 대단한 아이다”라고 소문이 퍼졌다. 선창가에 동곽이 있는 큰 동네에 60여 세대, 산넘 마을과 짐시리 마을에 각각 대여섯 세대 합쳐서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섬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은 이들 두 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나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동네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던 고모는 총을 잡은 군인들이 집 마당에 서서 조카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터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에게로 갔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낮에는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인민군들이 타고 온 뚝배로 섬을 떠난 초저녁에야 집에 돌아 오셨다. 인민군 두 명이 아버지 농구화 두 켤레와 양말 두 켤레를 가지고 섬마을을 휩쓸고 간 다음 날 우리 동네에는 진짜 6.25가 터졌다. 아버지의 친구인 이상봉씨가 인민위원회장이 되고 어머니의 친구인 유씨 아주머니가 여성동맹위원장이 되어 많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몰려 와서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고 우리 전답과 가재를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큰집 머슴이던 병식씨가 우리 광에 들어와 벽에 걸려 있는 물엿을 뜨는 놋쇠 국자를 가져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추석과 설이 되면 짝을 내서 햇볕에 말린 엿기름을 하루 종일 가마솥에 고아서 물엿을 만들고 떡에 찍어 먹기 위해 물엿을 퍼는 어머니가 시집오실 때 가져오신 애지중지하시던 놋쇠



국자를 큰집 머슴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처럼 내려 갔어 갔다. 막내 삼촌의 친구가 소년단장이 되어 우리 마루에 동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장백산 줄기 줄기 피어린 자옥.....” 노래를 가르쳤다. 그 다음 날은 인민위원장등이 또 떼거리로 몰려와 초가 삼간인 우리 집의 광, 부엌 및 방에 인봉을 부쳤다. 가위로 길죽하게 자른 창호지에 먹물로 뭐라고 쓰고 부엌문과 광문과 방문에 부치고 빨간 인주로 도장을 찍고 떼면 죽을 줄 알라고 위협을 하고 돌아갔다. 광에 인봉이 부처지자마자 식구들이 매일 먹고 사는 곡식이 있는 광을 열지 못하게 뒀고 밥을 짓는 부엌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우리 다섯 식구는 당장에 굶게 되어 버렸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장석씨가 급히 부엌 앞 마당가에 흙과 돌로 부뚜막을 만들고 가마솥을 걸었으며 광에 두지 않고 오양간에 가마니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북감자(감자)를 삶아 밥 대신 먹었다.

(다음호에 계속)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

# 문화탐방 기행문 공모전

##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인니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안정감과 친근감을 갖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니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재인식하도록 격려하고, 교민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의 분위기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자합니다.

1. 주제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기행문(제목은 자유선택)
2. 원고 모집 기간 : 2010년 6월~9월 20일
3. 대상 : 인니 거주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4. 원고분량 : A4용지 2장 이상(글자모양=신명조, 글자크기=11, 행간=160%)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6. 시상 및 시상송회 : 10월 중
7. 시상내역: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시상내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의 종류	인원	시상	시상내역
대상(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1명)	2	재인니한인문협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1명)	2	재인니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5명)	5	한인회문화연구회장상	상장과 부상

8. 문의처 : 사공경(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정자(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 김문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182회 한인회 인니문화 연구회 문화탐방

- 일시: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집결지: 한인회(코리아센터)
- 탐방지: The Mesjid Istiqial/ Museum National/ Museum Perumusan Naskah Proklamasi/ Museum Joang 45외
-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 천안함 추모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기업 및 교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 및 금양호 희생자 한주호 준위 및 인도네시아 2인(누르카호, 유스프 하웨파) 유가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 4월 25일부터 성금을 모금하였으며 많은 한인기업과 교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회사 및 단체명	대표자	금액	
			USD	RP
1	KORINDO GROUP	승 은 호		15,000,000
2	땅그랑 한인회	이 세 호		15,000,000
3	바탐 한인회	오 명 택		3,000,000
4	발리 한인회	강 호 철		2,000,000
5	버까시 한인회	김 갑 한		25,000,000
6	보고르 한인회	한 현 봉		10,000,000
7	빨렘방 한인회	이 상 만		1,000,000
8	수까부미 한인회	김 흥 기		2,000,000
9	상운 회원 일동		1,000	
10	우리은행	이 민 재		15,000,000
11	하나 은행	최 창 식		15,000,000
12	한국 도자기	차 상 만		20,000,000
13	KOFA(신발 협의회)	송 창 근		15,000,000
14	KOGA(봉제 협의회) PT. ACMI	배 도 운		15,000,000
15	PT. ACMI	강 호 성		5,000,000
16	PT. BOSAENG JAYA	곽 삼 섭		5,000,000
17	PT. DONG JUNG INDONESIA	조 규 철		5,000,000
18	PT. DONGSUH SECURITIES	최 대 호		5,000,000
19	PT. GAYA INDAH	김 영 욱		3,000,000
20	PT. HANINDO EXPRESS UTAMA	신 기 업		5,000,000
21	PT. KOLON INA	안 흥 제		10,000,000
22	PT. LG ELECTRONICS	김 원 대		10,000,000
23	PT. LOTTE MART INDONESIA	문 영 표		10,000,000
24	PT. MISUNG INDONESIA	김 병 철		5,000,000
25	PT. NANTOY RESOURCES	배 형 석		5,000,000
26	PT. PAN BROTHERS	이 완 주		5,000,000
27	PT. PRATAMA ABADI	서 영 울	1,000	
28	PT. POWERTECH INDONESIA	전 민 식		1000,000
29	PT. SAMICK INDONESIA	김 성 대		5,000,000
30	PT. SAMINDO	김 우 진		5,000,000
31	PT. STAR CAMTEX	김 주 철		5,000,000
32	PT. VICTOR JAYA RAYA	이 호 덕		5,000,000
33	YSM&PARTNERS	이 승 민	100	
34	NO NAME			5,000,000
TOTAL			2,100	252,000,000

# 지상의 방한칸

유촌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끄망에 멋진 아파트가 멋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마치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올라가는 빌딩을 보고 있으면 인도네시아는 참 중간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근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엔 공동묘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묘지라 함은 산에 있거나 아니면 주택가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을 거하고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예상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설정이다.

도심 한가운데, 바로 옆에는 집들이 묘지와 담을 함께 나누며 공존한다. 그 묘지와 묘지 사이를 오가며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것일까? 이곳 말고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사이사이에 묘지가 있고 묘지 담장과 사이를 두고 집이 있다. 같이 공존하는 일상이다.

지금도 끄망의 한 쪽에선 빌딩이 올라가고, 묘지 바로 옆 땅에서는 또다시 주상 복합 건물이 올라가려는지 한참 땅을 다듬고 있다. 이것이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삶과 죽음이 이웃해 있는 생활에 익숙해서 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곳에 사는 외국인 인 나에겐 무척 생소하고, 경이롭기 까지 한 일일이다. 우리의 정서 속에 공동묘지는 전설의 고향버전으로 기억되고 있어선지 밤에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곳에 귀신이 쭈구린 채 앉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는데, 이곳사람들은 그 옆에서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린다.

옆에 있는 집들, 심지어 몇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다. 한국 같았으면 혐오시설 운운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해도 여러 번을 했을 터인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산자의 집과 죽은 자의 집이 도심 한가운데 공존하는 모습이 내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상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듯 한 사람들에게 내게 달리 할 말은 없다. 그저 이상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이 가능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경기도 화성에 친정 집안의 종산이 있다. 버스타고, 다리 건너고, 한 참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아주 오랜 전 이지만 종산이 서초동, 화물터미널 근방에 있었을 땐 산자락 어디에서 인가 놀며 할미꽃도, 제비꽃도 본 기억이 있는데, 종산이 개발 때문에 화성 발안 쪽으로 옮겨 갔다. 그곳에 모신 이후 집안사람들은 종산에 일 년에 두 번, 그리고 시제나, 특별한 제가 있을 때를 합한다고 해도 일 년에 네 번 가기가 힘들다.

나 역시 인도네시아로 오기 전에도 한번 할머니 산소에 들려야지 했으면서도, 결국 이런 저런 시간적인 이유로 미루다가 찾아뵙지 못하고 왔다. 가끔 할머니가 생각날 때면 큰맘 먹고 다녀오곤 했어도 공원에 가듯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다.



이제 그곳은 또 다시 개발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ㄸ망에 초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듯이 그곳에도 무슨 신도시 개발이니 하면서 분주하단다. 집안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보상을 받고 종산을 어디로 옮기느냐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집안의 남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지라 내가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요즘 세상에 후손이 발복한다는 명당 터를 찾는 것도 불가능 하니 수목장으로 하자고 했다가 정신 나간 딸내미 소리나 들을 것은 뻔 한 일이니, 소식이나 들을 뿐이다.

오늘도 나는 ㄸ망의 묘지를 지나간다. 지상에 작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하다 갔을까, 혹은 죽어서도 도심 한 가운데 누워 있는 기분은 어떨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다.

아마 산등성이를 타고 산소가 즐비 했던 친정의 종산도 어쩌면 납골당이라는 초현대식 시설로 대체될지도 모

른다. 내 할머니나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숙부인 할머니까지도 즐지 간에 지상의 집한 칸이 형편없이 축소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급하다. 나야, 화장해서 허공으로 날아갈 작정을 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오랜 세월 땅의 지기를 받으며 존재(?) 해왔던 분들이라서 말이다. 덕분에 후손은 한 몫 챙기게 생겼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도심 속에 집 한 칸을 마련하고 누운, ㄸ망 묘지의 주인들과 자카르타국제학교 옆의 묘지의 주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을까 궁급해진다.

1년 후 2년 후 그 묘지도 밀리고, 어느 건설 회사가 그 위에 기가 막힌 주상복합을 올리는 날이 올까? 어찌 내가 보기엔 그 묘지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점점 산자의 땅은 넓어지고, 죽은 자의 공감은 좁아지는 세상이다.

#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 021-526-8444 나 이메일 :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 ✓ 정기 총회 개최

5월 11일(화) 헤리티지의 전체 정기 총회가 꼬망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각 부문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수 등이 준비되었으며, 많은 외국인 회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고, 각 부문별 헤리티지 활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 Museum Tour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화요일과 셋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5월 29일 국립박물관 한국가이드들이 모여서 “보물관(Treasure room)”에 대해공부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국립박물관 봉사자들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스튜디오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 유진, 이성래씨가 박물관직원을 위한 언어교육과정을 위해 매주월요일마다 한국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입회원 0명 모집

언어교육과정에 한국어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사항은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관심있으신 분은 헤리티지 공동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School Program

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영덕님을 중심으로 4월 9,12일에 한국국제학교에서 6학년,중등 9학년 대상으로 족자, 발리발표를 기여주씨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선생님 연수차원에서 열대과일에 대해 이정희씨가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이정희씨 집에서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를 재 정리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신입회원 0명 모집

탐구와 배움에 관심이 많거나,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팀장 김영덕(0812-1088-13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Photo Club

사진반은5월11일구.한국대사관저에서김세영작가님 사진전 관람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8일 ( 화요일)출사예정입니다..

### 신입 회원 0명 모집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안내

헤리티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Museum Tour Guide Training Workshop에 참가자 모집합니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과 친구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유물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 공동회장

안연숙 0815-9741-851

이청민 0811-818-213



# NuArt Sculpture Park

JIKS 10학년 현예진

높은 탑 끝에 올라선 소년의 옷자락은  
펼러이지 않는다

뱃가죽이 뚫린 채 내달리는 말의 갈기도  
휘날리지 않는다.

지느러미를 치켜세운 상어가 헤엄쳐도  
물결은 일렁이지 않는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가 흐느껴도  
그 어깨는 떨리지 않는다

하지만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은  
NuArt Sculpture Park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소년의 옷자락이 펼러인다  
말은 탄성을 지른다  
상어는 물결을 일으킨다  
굶주린 아이는 눈물을 닦는다

NuArt Sculpture Park에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



학교 수학여행 일정 중 가본 NuArt Sculpture Park는 나에게 작은 충격을 안겨줬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은 많은 작품을, 한 사람이 생각해내고 만들어 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들은 어려운 예술작품이라기 보다는, 누구나 함께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깊게 다가왔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도 톡톡튀는 개성을 가진 Nyoman Nuarta의 작품들을 짧은 시로나마 표현해 보았다. NuArt Sculpture Park에서는 하늘, 나무, 청동, 구리, 쇠, 철... 모두가 예술이 되었다.

# 미디어 문화

인재 손인식(서예가, 한인예총 회장)



미디어 시대, 이 말은 이 시대를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전자공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미디어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특성과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또 세분화되면서 웬만해서는 속속 등장하는 신조어를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시대의 조류 때문일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미디어가 무려 열여덟 개에 달한다. 따라서 이 칼럼에서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현존하는 방송이나 정기 부정기 간행물, 인터넷 웹진 모두를 미디어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 미디어들이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비록 이 시도가 학술적 차원의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서두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미디어다운 미디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평이어야 하는 조건을 전제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산자와 소비자 피차서로가 상대에 대해 긍정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이 사회의 미디어가 반듯한 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실재하는 미디어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한 웹게진으로서 KOTRA에서 발행하는 <인도네시아 투자뉴스>다. <인도네시아 투자뉴스>는 KOTRA가 한국 정부의 산하 기관답게 개별 교민기업들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경제, 무역, 투자관련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기업이나 비즈니스맨들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문 인터넷 웹진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집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니와, 인도네시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한편 유사한 웹진으로 <시미 뉴스>와 <테일리코리아>가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일간지를 토대로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 또 교민과 교민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투자 관련과 기업 운영, 정보 습득의 차원에서 선행되고 있다.

다음은 광고 정보지로서 <교민세계>, <벼룩시장>, <여명>, <한울> 등이 있다. 이는 상업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매체들이지만, 광고가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입자의 양쪽을 충족시키는 정보로서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만큼, 광고 정보지들의 기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광고 외에 읽을거리 대부분이 재활용을 한 것들이지만 교민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정보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자가 선별 게재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잃지 않고 있다. 다만 과도한 경쟁보다는 사안에 따라 서로가 공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어 <한마음 은혜>, <해인과 붓다>, <그레이스 저널>을 살펴보자. 이들은 모두 한마음 교회,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 주님의 교회 등 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발행되는 매거진이다. 그 규모도 작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발휘하는 힘은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특히 타 종교에 대해 교양과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교민사회 안에서 종교 간 배타적 벽을 허무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타 종교 성직자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과 영적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것의 큰 역할을 보게 되는 사례이다.

다음은 <한인뉴스>, <일요신문>, <한나프레스>, <동부자바 한인들>이다. 우선 한인뉴스는 한인회가 월간으로 발행하는 매거진이다. 직접취재 및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교민필자, 그리고 폭넓은 배포를 자랑하며, 체류국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주 콘텐츠로 삼고 있다. 한인뉴스는 몇 가지 이유로 대표성이 부여되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역할의 정론 지이기를 바라는 교민들의 뜻이 그 중심에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요신문>은 주간지로서 국내 일요신문과 콘텐츠



를 공유하면서 교민사회에 필요한 공지사항과, 교민사회 이모저모, 광고 등을 전달하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남아에 진출한 동포들의 교류지를 자처하는 <한나프레스>에서는 소외된 한인계층을 위한 사랑의전화운동본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라바야 지역 2천여 한인들의 대변지 <동부자바사람들>은 지방 유일의 한인신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한인회 간부들의 힘으로 발행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미디어든 사명감이 없이는 출발조차 할 수 없고, 한다면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미디어의 속성이다. 미디어 본연의 사명감을 망각한 채 오직 상업적 수단으로만 치달거나 또 그렇게 비쳐진다고 하더라도, 설립인이나 편집자의 사회 기여의지를 온통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쉽지 않은 교민사회 미디어에서 한국 국내, 메이저 미디어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마저 없었으면 타국생활이 얼마나 삭막했겠는가 라는 시각도 적절치 않을 것이다. 아직도 자카르타와 위성도시를 제외하면 광고정보지도 귀한 것이 현실이며, 직접 정보망인 인터넷이나 YTN 방송도 원활하게 접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는 교민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오직 교민 미디어의 사명감 발휘와 교민들의 격려와 참여는 절대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

이어서 극동방송의 <해피자카르타>를 살펴보겠다. <해피자카르타>는 매일 저녁 6시~7시에 전달되는 FM 100.6 채널의 라디오 방송이다. 한국 극동방송의 자료와 현지의 전문가나 선교사들의 주도 아래 방송되고 있는데, 특별히 해피 자카르타 합창단, 해피 자카르타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창단함으로써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 활동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 미디어의 총아로 인정되는 영상미디어 부분을 살펴 보겠다. 주지하시다시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는 KBS월드와 K-TV 두 방송사가 있다. 두 영상미디어는 설립동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전한 동포 사회 구축에 1차 목표”를 두

거나 “한인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언어능력에 도움은 물론 타국에 사는 교포들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문화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 메이저 방송사 프로그램을 재편집하여 보여줌으로써 교민들이 타국에 살면서도 국내의 뉴스와 연속극, 교양, 스포츠 게임, 오락 프로그램을 향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뉴스 제공 등은 실시간 또는 두 시간 시차의 국내와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교민사회를 위한 공지사항이나 문화행사 알림, 각종 광고 등을 제공하는 것도 유사한 점이라 하겠다.

두 방송사는 각기 다른 점도 있다. KBS 월드가 영어와 인니어 자막을 통한 언어 간접 교육기능과 인도네시아의 모든 케이블 및 위성업체에 기본 채널로 KBS World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면, K-TV는 인도네시아 뉴스는 물론 교민사회 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교민에 의한 교민을 위한 방송”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교민들의 바람도 있다. 현지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청을 할 수 없는 지역 해소, 잦은 재방송, 시간대별 편성의 묘등이 그것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위해 각 미디어 편집인을 대상으로 대화와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었다. 세세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은 꿈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 다양한 교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민들께 바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교민들의 건전한 참여였다. 따라서 서두에 가졌던 의문, 즉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미디어다운 미디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바로 미디어 문화 창출자와 소비자인 교민들이 의문의 답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미디어들의 사명감 발휘와 높은 가치의 문화 창출, 교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통한 조화, 이것은 곧 이 사회가 보유한 우리 문화의 실체를 시간이 갈수록 빛나게 할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국제 모니터링 강 유역의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적인 연구 기관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10대 강을 조사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의 찌따룸강이 1위로 밝혀졌다. 세계에서 1위라고 기뻐할 일도 축하받을 일도 아니지만 모든 법칙이 그러하듯이 1위에겐 항상 돌아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찌따룸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5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찌따룸강에 대한 인터뷰를 따기 위해 ADB 사무실로 갔다. 직원에게 가급적이면 배경을 물과 관련된 곳으로 원했다니 자카르타시내 찌리웅이(Ciliunggi) 하천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건 강물이 냄새만 다르지 완전 카프치노커피 같다.’

흘러가는 찹링웅강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ADB직원 순다리 여사는 내가 커피 마시고 싶다는 말로 들었는지

“ 김 마우 미눔 카프치노?”

“ 아니요, 강물이 카프치노커피 색깔이라고요.”

어리둥절한듯하다가 알아들었는지 박수쳐가면서

“ 아.... 맞아요. 카프치노커피.....”

찌따룸(Citarum)강은 반동에 걸쳐있으며 아홉 개의 작은 하천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어 이루어진 거대한 강이다. 강은 20년 전만해도 물고기들이 살았고 어른과 아이들이 먹을 감았던 아름다운 강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지금 그 강에는 쓰레기들이 뚝뚝 떠다니고 있으며 고무신만한 목선을 탄 녀마주의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구멍조끼하나 없는 그 목선을 타고 돈이 될 만한 재활용품을 줍는다. 나는 젊은이를 불러서 작은 목선을 함께 타자고 했다. 배가 하도 작아 두 사람이상은 타지 못한다고 젊은이가 말했지만 피디가 나와 같은 배에 타겠다고 한다. 셋이 타고 보니 일엽편주가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것이란 걸 알았다. 무게 때문에 강물과 배 높이가 담배 한 갑 차이다. 정말이지 누구 한 사람이



찌따룸강의 심각한 오염과 낄마주의들



찌따룸강의 하천에서 재활용 쓰레기 줍는 아저씨

몰려든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뚝구리로 변신해서 그렇게 모여든 주민들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형편을 살피려고 다닌다. 그날도 몰려 든 주민들과 하천을 함께 걸었다. 양심을 상실한 채 겁 없이 내보내는 염색공장의 폐수는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물꼬 터지듯이 활활 흘러내렸다. 폐수는 군청색 거품을 몽글몽글 만들면서 하천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공장의 폐수는 시간마다 갈라가 바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류에서 철새 없이 떠내려 오는 주택가의 오물과 쓰레기들, 도대체 누가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지 물으니, 주민들이 우리 마을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저 윗마을 사람들이란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방법을 말했더니

큰 기침이라도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목선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다.

현재 찌따룸강은 중류 정도에서 운하 약 11km 거쳐 정수되며 약 일천만 자카르타시민들의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며 수자원관계자가 설명해 주었다. 또 반둥지역 약 일천오백만 명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서부자바지역의 젓줄이라던 찌따룸강 주변으로 수백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아홉 개 하천 중의 하나인 찌따룸(Citepus) 지역으로 가봤다. 카메라 들고 다니는 우리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설탕이 되고 주민들은 개미처럼

반장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잖아도 돈이 없어 다들 살기 힘든데 그랬다간 싸움이 나든지 아니면 맞아 죽어요.”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한바탕 웃고 말았다.

동네 다리 밑에는 아예 쓰레기가 쌓이도록 막대기로 하천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이야길 듣고 보니 막대기가 수문역할 했다. 다리 밑에 잔뜩 쌓인 쓰레기 처리방법을 물으니 통장이 관공서의 지시방법이라며 “일주일에 한번 저기 막대기를 들고 모인 쓰레기를 강으로 떠내려 버립니다.” 그 말을 한 통장과 주민들도 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통장은 쓰레기를 내보내버릴 수 있어 행복해서 웃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차피 분리수거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다리 밑에 일주일 동안 쌓았다가 하루 날 받아 한꺼번에 떠내려 보내는지 관공서의

기발하면서도 알맞은 쓰레기처리방법이 하도 우스워서 캐들캐들 웃었다. 한참 웃고 나니 악취가 목으로 빨려 들어갔는지 목이 메케하였다.

가방에서 마스크 꺼내는 나에게 통장은 “지금은 오후니까 이 정도지만 낮에는 악취가 심해서 코를 쥐고 다녀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 코맹맹이로 말했다. 그래, 맞아! 뜨거운 한낮의 햇볕은 오염된 물을 약 달이듯이 다려지고 지독한 냄새들이 푹푹 날아다닐 거야. 그곳에



등 휘어진 기형거북이

있는 동안 악취는 나의 후각을 마비시켰던 모양이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비위가 약한 나는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까지 났다. 장대비가 내리 꽃히고 머리가 멍하던 그날 밤, 타이레놀 두 개로 나는 간신히 잠들었다.

다음 날 우리는 안쥘(ancol)로 갔다. 스리부섬(Seribu)의 하나인 프라무까섬(Pramuka)으로 가서 중요한 거북이 만나려고. 그날따라 바람과 바닷물은 우리가 탄 스피드보트를 보더니 반갑다며 행가래를 올려주었다.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행가래 치고 나니 할 수만 있다면 거북이에게 전화 걸어 바다로 마중오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정원 한편에는 플라스틱 통들이 놓여 있고 뚜껑을 열자 거북이 알들이 모래 속에

묻혀있었다. 거북이 알은 모래 속에서 55일을 견디면 부화한다. 부화 기간에 알이 상하로 뒤집히면 부화에 실패한다. 부화 중에 날씨 기온의 차이가 더우면 암컷으로 서늘하면 수컷으로 부화가 될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35년 동안 거북이만 보살펴온 살림씨는 마치 어린아이 보살피듯 모래로 어린 거북이들을 목욕시켜 주었다.

아니, 그럼 겨우 거북이 목욕하는 것과 알아나 보려

그 힘든 과도를 타고 갔단 말인가. 아니지 바로 이것이다. 만나고자 했던 거북이를 만났다. 그 거북이는 섬 주변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봉긋해야 할 등이 움푹하게 들어 가 있었다. 마치 세숫대야를 얹어 놓고 구둑발도 콧 밍이 쭈그러뜨려진 그런 그 모양새였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북이를 살림씨가 그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형거북이가 몇 마리 더 있었는데 다 죽고 한 마리뿐이며

그 옆에는 목에 숨진 걸린 거북이, 뒷발 잘린 거북이, 애꾸눈 거북이등 어린 거북이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 모든 원인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얻어질 결과들이었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 있다. 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환경파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현상들이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계속 파괴한다면 그 환경에 의해 인간들이 파괴되는 일도 피할 수는 없고 머지않았다. 한국 다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오염이 제일 심한 타이틀을 벗는 짜따룸강이 되길 나는 바란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 평통 동정

#### 전반기 결산회의

지난 5월 19일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제14기 민주평통 인니 지회 전반기 결산 회의가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전반기(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말) 1년간의 사업결과가 회장단에 의해 보고 되었으며 후반기 1년간의 사업계획이 조율되었다. 전반기 사업실적과 후반기 사업계획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전반기 사업실적

1. 빠당 수혜의연금 전달  
(일시: 2009년 10월 23일, 금액: 2천4백만 루피아)
2. 대북정세 간담회  
(일시: 2009년 11월 5일)
3. 건국 61주년 국민통합 주장말하기 및 글짓기 대회  
(일시: 2009년 11월 17일, 장소: JJKS강당)
4. 평통소식 발송  
평통 인니지회 위원 및 한인회 운영위원, 이사에게 평통소식을 이메일로 발송
5. 불우이웃 돕기  
일시: 2010년 4월 16일  
행사명: 밥퍼해피센타 '사랑은 실천입니다'  
대상: 판중 뿌리옥 역전 빈민가 400명
6. 천안함 성금모금  
(금액: 미화 2,420불, 송금일자: 2010년 4월 28일  
송금처: KBS사랑의 열매)
7. 전반기 결산 회의 (일시: 2010년 5월 19일)

##### ◇ 하반기 사업계획

1. 현지인 불우 이웃 돕기
2. 인도네시아 4개 대학 한국어과 학생 대상 글짓기 대회
3. 한국 북한학과 교수 또는 전문가 초청 강연
4. 국민통합 주장 말하기 및 글짓기 대회
5. 한국교민(성인) 대상 통일 주제 수필문 현상공모

#### 천안함 사태 관련 성토

특히 5월 19일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위원들간에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행태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향후 이곳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하여도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우선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관련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을 자제하여 거주국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장태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니지회 위원

요즘한국언론의주요이슈는지방선거와천안함사건이다. 유럽의 금융위기로 환율과 주가가 널뛰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슈에 묻혀 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과 댓글들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같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빌어 자기 의견을 익명으로 표현하는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글들이 난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천안함사건을 보면서 한국에 해군전술과 잠수함에 관해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줄은 처음 알게 되었다. 사실 잠수함 전력이나 함정침몰 원인 등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생소하기 짝이 없는데 어쩔 그렇게 사고 경과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2년전 광우병사건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정도로 시끄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 광풍은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 어릴 적에 보리 고개를 겪으며 쇠고기는커녕 보리쌀도 못 구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어야 했던 우리 부모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확률적으로 몇 억 분의 일정도 되는 사안을 침소봉대하여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한 세력들은 누구일까? 식품안전에 대해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3억 인구의 미국 국민이 아무 걱정 없이 먹는 그 식품이 그렇게 우리에게만 치명적이었을까? 우리의 무역수지를 위해 수입을 막기 위한 공색한 이유였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진짜로 광우병 때문에 그랬다면 그 명분이 좀 유치하다.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대립을 통해 사회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대립의 빌미를 광우병이나 천안함사건을 통해서 찾는다면 그 사회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사건은 우리국토를 수호하는 46명의 장병들이 근무

중에 희생당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국가의 안위가 위협을 받은 사건이고 자칫 위험한 도화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만일 누군가 미국이나 중국의 군함을 어뢰로 침몰시켰다면 세계 3차대전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국론이 분열되어 우리의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정반대로 있다는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 시기에 일부러 일으킨 일이 아닌데도 선거용으로만 치부하려는 시각은 더욱 그렇고, 일부 정치인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에서 보는 것은 더욱 안타깝다. 아프리카 속담에, “매일 보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즉 초원에서 살다가 자주 보게되는 사자가 처음에는 매우 조심하게 되지만 매일 지나가면서 보게되면 일상적으로 느껴지고 급기야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표범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우리의 동포이자 이웃인 북한을 그렇게 굴절된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포로서 끌어안고 가야 하나 그 북한이 세워진 경과나 그 집단을 이끌고 가는 지도층을 보면 우리가 결코 동정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되는데 10년간의 굴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심각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인 3대 세습과 인민 압살 정부, 처참한 비밀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는 집단, 인민 수 백만 명을 굶겨 죽인 그 지도자를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안에서는 작은 부조리도 즉각 고발하는 그 숭고한 정치인들은 왜 저 악독한 지도자에 대해 함구하고 그 앞에 조아리려고 다투며 줄을 서는지, 굉장한 아이러니다. 우리끼리는 생각이 다르고 다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지만 저 말도 안 되는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한

생각과 한 목소리를 내야 올바른 지성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상황전개를 보면서 본인은 참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속 양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흐름이나 정치 조류에 편승해서 끌려 가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북한땅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60년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압제를 주도하는 겨우 수십만 명의 북한 지도층이 2천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을 최극빈 생활로 몰아넣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상황에서 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을 뒤집지 못하는가? 총칼로 민중을 억압하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눌려 따라다니는 지도층 때문이리라.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은 한번 정도는 시험해 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너무 일관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해 온 정부정책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법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논리도 독특했고 새로웠기에 젊은이들에게도 기성층에 대한 반발로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었다. 그 정책을 10년을 실험해온 결과는 김정일의 핵무기의 개발과 어뢰공격으로 되돌아 왔다. 남북한이 짹짹이 되어 서로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파견하고 잔치를 벌일 때 음흉한 지도자는 지하 기지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에 날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하며 위협하고 있다. 그 무기를 만든 목적과 제일의 사용대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두 번째 대상은 자기가 압제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며 그 외에는 자기들을 간섭하는 제3의 국가들일 것이다. 이미 실패한 정권 연장을 위해 동포와 민족을 볼모로 잡아놓고 핵무기로 겨누고 있는 김정일의 위협은 10년간 몇조원을 퍼주며 같은 동포를 도와주겠다고한 결과로 돌아왔다. 우린 그동안

취해있던 짹 사랑에서 빨리 깨어나야한다. 지금도 어뢰를 맞고 침몰한 천안함을 놓고 북한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어느날 아침 뉴스에 핵무기 폭발로 서울 불바다 기사가 나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을 너무 코너에 너무 몰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 하는 분들도 있다. 국제법상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은 전범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전 기간중에 무고한 생명을 기습해서 살상했고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 전범의 손에 무고한 인질이 된 북한 동포들과 수많은 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쥐어져 있다는 현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그 무기중의 상당수를 우리 돈으로 보태준 것은 더 큰 딜레마이다. 그 무기들에 의해 대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장병이 전사했을 때 우리의 국방장관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아픈 자화상이다. 그런 조국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귀한 청춘을 몇 년씩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하는건지?? 지금 우리는 긴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한다. 우리 천안함 해군 장병 46명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를 그 긴 최면에서 깨우는 자명종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그래도 정신을 못차리는 국민이라면 과거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당과 싸우만 일삼다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말기의 무능한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르랴. 여당도, 야당도 이제 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해선 단호하고 바른 말을 해야한다. 우리의 정치관이나 생각들은 다를 수가 있겠으나 말도 안 되는 북한 김정일 집단에 대해선 같은 시각으로 일관되게 접근할 때 그들의 오판을 방지하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이다.



# 행복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행복해 지기 위해 삶을 산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 찾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날 때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행복해 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면 건강 악화와 인간관계의 축소 때문에 불행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근래 사회는 연구 결과와 수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근거를 들어 설명한 자료를 대할때면 그것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꽤 높아 집니다.

노년에 행복 할 수도 있고 불행 할 수도 있고... 주어진 환경과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큼의 행복을 누리며 사세요?

삼형제 아버지 김경찰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년 사회에 대한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해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평범할 수 있는 가족사를 통해 결혼과 자녀, 부모대에 느낄 수 있는 사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온한 노년을 맞을 것만 같던 삼형제의 아버지 김경찰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이것 저것 시도해 보지만,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터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합니다.

결국 자칭 보험 여왕이던 큰 며느리에 도움을 청하고 ... 무작정 집 근처 경찰서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영업해야 진정한 영업이라며 사람 구슬리는 법을 배웁니다.



## 수상한 삼형제 (Keluarga Aneh)

경찰서에서 나오는 생면부지인 경찰 두명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Teleponlah dia jika ada kasus yang tidak bisa **dipecahkan**.

해결 안되는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Pecah**는 주로 물건이나 부서지거나 피부가 갈라짐 또는 문제가 해결 되거나 풀렸을 나타낼때 사용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다 정리되다라고 말할때 Pecah 와 동일하게 Masalah kemarin sudah **selasai**(어제 문제는 해결 되었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Selasai**는 종결... 무언가를 끝마쳤을때 사용되기도 하나, 책임 따위를 완수 했을때 Tugas saya sudah **selasai**(내임무를 완수 했어(끝냈어))는 **pecah**(문제가 해결되는, 풀림)를 대치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 **Pecah**는 이 외에도 다음과 문장에 따라 표현하는 뜻이 달라 집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비밀이 알려진 경우 (Tersiar - tentang

kabar dan rahasia)

**Pecah kabar** bahwa putra akan mempersunting putri kerajaan Jo sun.

왕자가 조선의 공주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잃음, 상실함 (Hilang)

Kalau kepercayaan suami-istri sudah **pecah**, maka sukar menjaga keluarga.

부부간에 신뢰를 잃으면 가족을 지키기 어렵다.

극복, 시련을 이겨나감 (Mengatasi, Menanggulangi)

Bagaimana cara yang baik untuk **memecahkan** (pecah) kesulitan yang kita hadapi ini?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외에도 골머리 아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 **Pecah kepalaku**(머리가 깨질것 같다)와

**Berpecah belah** 그릇이나 어떠한 물건이 깨지거나 어떠한 모임에 분열이 일어나 해산된 경우를 나타내며 숙어 처럼 사용됩니다.

**\*Tip) Pecah, Putus, Patah**

**Pecah**는 부서져 조각 조각 난 상태를 **Putus**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나 관계가 깨어짐 또는 양측 분쟁 이나 논쟁 발생시 어느 편이 옳은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줄때, 결정 내릴때 사용되며, **Patah**는 실패, 중도포기, 의욕 상실이나 절망감을 표현 할때 사용됩니다.

● **Putus**

판결, 종결되다 (Selesai, beroleh kepastian pihak mana yang benar)

Setelah tiga kali disidangkan oleh pengadilan, barulah perkara itu **putus**.

법정에서 3번의 재판을 마친 후 이제서야 사건이 종결 (판결)되었다.

결정 내리다. 결심하다 (Tetap hatinya)

Sudah **putus niatnya** akan meneruskan pelajaran sekarang walau bagaimanapun besar susahnya untuk belajar.

절망하다, 포기하다(Putus asa)

Jangan **putus asa** karena kegagalanmu itu, tetapi berusaha kembali.

실패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다시 노력 해라.

● **Patah**

실패(Digagalkan)

Serangan musuh akhirnya dapat juga **dipatah** setelah berlangsung pertempuran seru.

접전 후 적군은 공격에서 실패 했다.

Dia sedang **patah hati** karena ditinggalkan oleh pacarnya.

애인이 떠난후 상실감에 휩싸였다.

중도포기(tidak dapat diteruskan)

Cita-citanya **patah di tengah** jalan karena kebangkrutan Ayahnya.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그는 중도에 꿈을 접었다.

## 2010년도 영주권자(장기체류자격) 입영제도 안내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하여 입영하는 경우 별도의 군적응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로 활기찬 병영생활과 보람된 병역이행이 되도록 병무청과 軍이 함께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부여

-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전까지 언제나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일반병사보다 1주전부터 <군 적응프로그램>이수 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군 적응프로그램”- 한국문화와 군대 예절 등 교육
- 특성·능력에 맞는 보직부여와 부대 배치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연1회 국외여행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 지급)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병무청홈페이지 ⇒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제출서류 : 영주권 사본

※ ‘10년도 영주권자 입영일자 (육군훈련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10. 3.8.(월), ‘10. 5.10.(월), ‘10. 8.09.(월), ‘10.10.11.(월)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82)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82-2) 820-4331~5





김은미 편집위원의 추천 도서

# W

**World - Wide - Weekly**

국내 최초의 국제 시사프로그램, MBC, W. 이 책은 목숨을 걸고 현장을 누빈 W 프로듀서들의 고통과 열정의 기록이다.

다양한 국제 이슈를 통해 국제적 시안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부분 세계 이슈를 다룬 책들이 피상적인 것과 달리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경쟁사회, 노동, 국제무역, 과학기술, 생명, 가난, 공동체, 전쟁, 평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진 빛의 이자라도 갚기 위해 손바닥이 부르도록 돌을 깨는 인도의 아이들, 세계 곳곳에 빨뿔이 흩어져 생활하는 이라크 400만 난민들의 고충, 가난한 나라에 버려지는 엄청난 선진국 전자 쓰레기의 위협, 새로운 미인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한 미스 스웨덴이 왕관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천국보다 자유로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노르웨이의 재소자들,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미국의 지식인들, 탈 석유화를 선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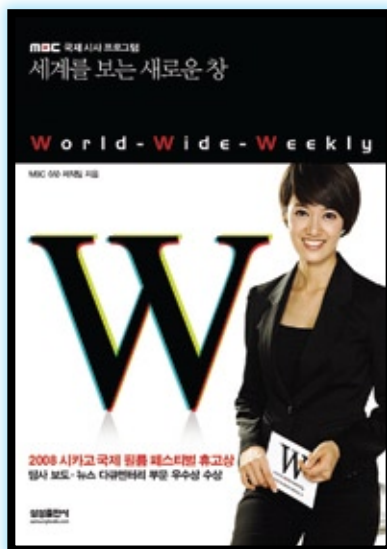
스웨덴의 대체 에너지 실험, 진흙으로 만든 쿠키로 배를 채우는 아이티의 아이들, 60년간이나 대치해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고 있는 나우루 공화국의 소설 같은 역사,

지구 온난화를 타고 확산 일로에 있는, 에이즈보다 더 많은 죽음을 낳는 말라리아의 발병 현황과 실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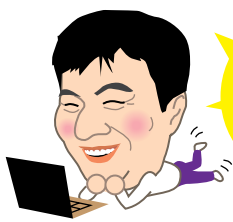
빠 속 깊숙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생존 문제이다.

이러한 세계의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쟁하고, 순위를 매기는 세계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훈련해 진정한 지구촌 이웃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길 꿈꾼다.



저자 MBC W 제작팀 | 출판사 삼성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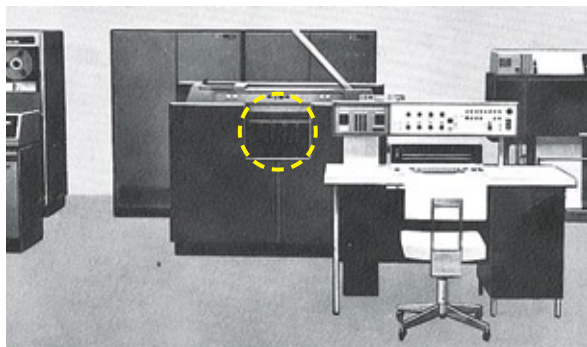


# 모니터와 해상도

전편 키보드 편에 이어서 오늘은 모니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컴퓨터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으며 모니터 또한 컴퓨터 성능을 따라 가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니터라고 관심 한번 주지 않으니 오늘 제가 제대로 모니터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는 모니터지 그제 무슨 이야기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모니터와 함께 해상도라는 것도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관계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이니까요.

모니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컴퓨터의 역사 이야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설치된 IBM 1401이 최초의 컴퓨터 도입입니다. 이 기종은 개인용이 아니라 텔레비전 드라마 600만불의 사나이 할 때 나오는 커다란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대형기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시면 이해 되실 듯...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책상크기 대비 보시면 참 크기도 하지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처리장치(CPU)입니다. 그 후 개인용 컴퓨터 도입시기는 1977년 애플이 최초로 들어온 기종입니다. 하지만 보통사용자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였고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김 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984년 정도 MSX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용이라기 보다는 게임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 후 IBM 컴퓨터가 저장장치 디스켓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DOS 버전의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 더 설명하면 머리 아프다 하실 것 같아 이 정도만 소개 합니다.

컴퓨터 역사 이야기 한 이유는 위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모니터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이야기 하려고 시작한 건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

모니터는 크게 CRT 모니터와 LCD 모니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 CRT 모니터

보통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배불푹이 모니터라고 했던 모니터로서 평면 모니터 라는 것이 나오면서 퇴물 취급 받은 모니터입니다. 볼록한 모양 때문에 모니터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휘어 보여서 좀 오래된 제품은 아무리 사각형으로 맞추어 주어도 화면이 휘어 보였던 초창기 모델입니다.

## --- 완전 평면 모니터



FLAT 이라고도 했던 모니터. 이젠 아까 말했던 배불푹이 모니터를 평면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로 오히려 오펝하게 보이는 제품도 있었던 모니터 입니다. 진 짜로 평면으로 모니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시점에서 L모 회사와 S모 회사의 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기

억되는데 볼록이를 평편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 L모사가 조금 앞서가면서 L모 회사가 인지도를 높였던 시기입니다.

## LCD 모니터



화면의 그리드(GRID)에 있어 패시브 매트릭스(Passive MATRIX)와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의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 액티브 매트릭스 LCD는 흔히 TFT 디스플레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패시브 매트릭스 LCD는 그리드의 각 교점에 위치한 픽셀(PIXEL)들에 전도체 그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는 특정 픽셀의 빛을 조절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전도체를 가로질러 그리드로 보내집니다. 액티브 매트릭스는 각 픽셀의 교점마다 픽셀의 휘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적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전류가 좀더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화면의 재생시간이 개선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마우스 포인터가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좀더 부드럽게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해상도라는 것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도화지에 어느 수준의 그림을 보여줄 건지는 해상도라는 높이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해상도 아무리 높아도 모니터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한정적이니까 모니터 성능과 해상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해상도?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픽셀(Pixel)의 숫자를 말하는데, 대개 가로방향으로 있는 픽셀의 갯수에 세로방향 축 위에 있는 픽셀의 갯수를 곱하기 형태로 나타냅니다. (640 \* 480, 800 \* 600, 1024 \* 768, 1280 \* 600 등등)

그러니 해상도가 높다라는 말은 픽셀의 개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을 듬성듬성 찍은 거랑 촘촘히 찍은 거



랑은 보여지는 수준이 다르겠지요. 모니터가 작고 해상도가 작으면 그런대로 볼만하겠지만 모니터는 큰데 해상도가 작으면 운동장은 넓은데 그 안에 채워진 점들의 숫자가 작다는 이야기이니 선명하지 않겠지요. 그러니 모니터와 해상도는 항상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 해상도 확인방법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 속성 클릭 -> 설정, 이곳에서 이것 저것 설정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모니터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화면 형태, 해상도 및 크기에 따라 나름대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모니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자도 14인치 볼록이 모니터에서 시작하여 22인치 LCD 모니터까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크기와 해상도에 감탄하며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LCD 모니터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장점	단점
IPS 패널	타 패널에 비해 시야 각이 가장 넓고 색상표현이 자연스러워 동영상에 가장 좋은 환경 제공	명암비가 다소 낮아 장시간 화면을 정지했을 때 잔상이 생길 수 있고 응답속도가 느림
VA 패널	높은 명암 비율로 인해 색상의 깊이를 잘 표현 사진 작업과 같은 이미지 작업에 적합	빠른 화면에서는 잔상이 보임.
TN 패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가형 제품에 많이 사용 빠른 응답속도와 낮은 전압이 최대 장점	좌우, 위와 정면과 비교하여 색상 차이 그래픽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





(4월호에서 계속)

### 13.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외국인에게는 경작권(Hak Guna Usaha), 소유권(Hak Milik) 및 건축권(Hak Guna Bangunan) 보유를 불허하며 사용권(Hak Pakai) 보유만 허용한다.

### 14.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가 가능한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에 기준한 법률 주체로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4.1. 개인

- 14.1.1.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자
- 14.1.2. KITAS(기한부 거주허가증) 소지자
- 14.1.3. KITAP(거주허가증) 소지자
- 14.1.4. 공용 비자로 입국자
- 14.1.5.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

#### 14.2. 현지 법인

- 14.2.1. PMA(외자투자) 회사
- 14.2.2. PMDN(내자투자) 회사
- 14.2.3. Non Fasilitas(일반투자) 회사

14.3. Representative Office : 한국법률에 의거 한국회사에서 설립된 한국회사(법인)의 인도네시아 대표 사무소

14.4. 재단 법인 : 종교단체, 학교, 학원 혹은 사회단체

14.5. 기타 기관 및 단체 : 대사관, 국영기업체의 지점, 정부차원 협력단체, 한국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대표 사무소 등

14.6.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이 허용되는 대상은 상기 14.1항의 방문 비자로 입국한 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 15. 개인 및 법인에게 취득을 허용하는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

15.1. KITAS 혹은 KITAP 소지자가 취득이 가능한 토지(부동산)

15.1.1. 빈 땅에 대한 권리는 불허한다.

15.1.2. 가옥 1동 혹은 아파트 1채만 허용한다. 그러나 소형 서민 주택(Rumah Sangat Sederhana) 및 서민 주택(Rumah Sederhana)에 대한 보유는 금한다.

15.1.3. 보유하고 있는 토지(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담보가 가능하다).

- 15.1.4. 자의로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하다.
- 15.1.5. 매년 재산세(PBB)를 납부해야 한다.
- 15.1.6. KITAS 혹은 KITAP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불이행시에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 15.1.7. 양도 시 부동산 양도세(5%)를 선납해야 한다(매도자 부담).
- 15.1.8. 권리 취득 시 취득세(5%)를 선납해야 한다(매입자 부담).
- 15.1.9. 사용권만 보유만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 보유가 불가능하며 국가 소유 토지에 주어진 사용권 토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 보유만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까지는 사용권 토지 위에 세워진 아파트가 없는 실정이므로 KITAS 혹은 KITAP 보유자가 제도상으로 적법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2. 인도네시아 국적소지자(WNI)

- 15.2.1.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대 기준으로 토지 소유 면적과 필지 수량 규제를 받는다
- 15.2.2. 다른 권리와 의무 사항은 상기 15.1.항에 준한다.

15.3. 현지 법인

- 15.3.1. 투자/사업허가서 상에 허가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이 명시되며 명시된 면적에 한해서 권리를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10% 초과는 허용하고 있다.
- 15.3.2. 땅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HGB(건축권), HGU(경작권) 혹은 Hak Pakai(사용권)이 주어진다.
- 15.3.3. 직원 숙소용 부동산 혹은 업무용 사무실 보유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 15.3.4. 정부의 허가없이 회사의 임의로 하더라도 매각이 가능하다.
- 15.3.5.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 15.3.6. 다른 사항은 상기 15.1.항에 준한다.

15.4. Representative Office(RO)

- 15.4.1. RO는 허가서 상에 시장 조사 및 연구와 회사



홍보 활동 등은 허용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상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15.4.2. RO 명의로 사무실과 주택에 대한 권리만 허용하고 있다.
- 15.4.3. 다른 사항은 상기 15.1.항에 준한다.

15.5. 재단 법인(Yayasan)

- 15.5.1. 재단의 설립목적은 비영리 사회 공익 기능에 한하며 설립 후 반드시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재단의 활동분야에 따라서 관계부처에 등록 후에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학교재단은 문교문화성에, 종교법인은 종교성이, 사회법인은 사회성에 등록을 해야 한다.
- 15.5.2. 재단 법인은 토지(부동산)에 대하여 건축권 및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다.
- 15.5.3.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5.5.4. 다른 사항은 상기 15.1.항에 준한다.

15.6. 기타 기관 및 단체

- 15.7. 사무실과 주택에 한해서 부동산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15.8. 다른 사항은 상기 15.1.항에 준한다.

### 16. 토지(부동산) 매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

#### 16.1. 기본 서류

16.1.1.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登記證書(Sertifikat Hak atas Tanah)

16.1.1.1. 토지 권리登記證書 상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로와 매도자의 명의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왜 상이한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6.1.1.2.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하며 건축권이나 사용권인 경우 권리 기한이 있으므로 잔존 기간을 확인한다.

16.1.1.3. 도시계획안 확정 이후에 발급된 등기에는 도시계획선이 등기에 표시되어 있다.

16.1.1.4. 권리登記證書 원본을 시/군 토지사무소에 제출해서 진위를 확인한다. 가짜登記證書가 더러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하다.

16.1.2. 건축허가서(Ijin Medirikan Bangunan/IMB)

16.1.3. 재산세 납부 고지서(SPTPBB) 및 납부영수증(STTSPBB)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더 중요하다. 재산세는 대물세이므로 등기 상의 명의로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 상의 명의로가 다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왜 상이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16.1.4.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매각 동의를 필요하다

재산 분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의 재산은 법에서는 공유로 보므로 부동산 매입 시 매도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6.1.5. 매도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 정관 및 변경된 정관 전체를 체크해서 정관 상의 적법한 자가 매도증서에 서명하는지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 17. 등기證書가 없는 부동산의 매입

인도네시아에는 등기證書가 없는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보다 더 많다. 고급아파트를 등기 권리證書없이 거래를 하고 주택 단지의 가옥도 등기證書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들지만

현실이므로 확실한 체크가 필요하다.

17.1. 왜 등기가 없는지 매도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17.1.1. 등기가 없는 일반적인 사유

17.1.1.1. 이미 신청해서 수속 중에 있다.

17.1.1.2.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동산이다(Tanah Hak Milik Adat)



17.2. 등기를 신청했으며 수속 중이라는 부동산

17.2.1. 등기권리 신청 접수증을 확인한다.

17.2.2. 누구 명의로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17.2.3. 등기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토지사무소에 문의한다.

17.2.4. 주택단지나 아파트는 처음에 회사 명의로 모등기(Sertifikat Indu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입자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한다.

17.3.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동산

17.3.1. 재산세 관계서류(Girik)

17.3.2. 리/동사무소 비치 대장 확인

17.3.3. 매도자 명의로와 Girik상의 명의 상이 여부 확인

17.3.4. Girik 보유 명의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권자 전체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17.3.5. Girik상태의 토지(부동산) 거래를 PPAT(토지문서 작성관) 혹은 Camat(면장)을 통해 거래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된 적이 있는





부동산은 정밀 체크가 필요하다.

## 18. 매입 절차

- 18.1. 매매서류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해야 한다. PPAT 업무는 공증인 혹은 Camat(면장)이 수행한다.(면장 이용 시 수수료가 더 높으나 면장은 거래하는 토지에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장 이용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 18.2. 통상 매도자의 의무사항과 매입자의 의무사항을 약정해서 매매 약정서를 먼저 작성 후에 각각의 의무사항이 이행되면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바로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되는 부동산의 등기 권리증서 유무, 매도자의 형편, 매입자의 형편 등을 감안해서 방안을 결정하게 되나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 부동산 중개사

- 19.1. 한인 부동산 중개사는 아직은 개인 혹은 영세 규모이며 잘 알려진 미국계 및 호주계 부동산 중개회사가 Jakarta에 진출해 있다.
- 19.2.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개 회사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회사도 있으나 서비스 면에서는 한인 부동산 중개사

혹은 외국계 중개 회사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다.

- 19.3. 현지 법규상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중개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 한인들은 광고 및 부동산 중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현지 실정이다.

## 20. 부동산 중개비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랜 관습에 따라 부동산 중개비는 매도자 혹은 임대자, 즉, 돈을 받는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외국계 부동산 중개회사는 매입자 혹은 임차자에게도 부동산 중개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한국에서는 양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가 양측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입자는 중개비 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중개사가 매입자보다는 자기에게 중개비를 주는 매도자의 입장을 더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 중개비 액수는 매매는 거래액의 3%이며 임대차는 임대차비의 5%이다.

## 21. 부동산 거래 문서 작성관비

- 21.1.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문서 작성관(PPAT), 공증인 혹은 면장을 통해 거래 문서를 체결해야 한다. PPAT, 공증인 혹은 면장이 작성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직접 체결한 부동산 거래 문서는 등기를 불허한다.
- 21.2. 통상 PPAT 혹은 공증인비는 매매 증서로 체결 시는 약 0.5%(영점오프로)선이며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다시 매매 증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탈 1%(일프로)까지도 차지한다. Camat(면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 3%(삼프로)선을 요구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 韓·日·中 3국 공조의 희망이 보인다

모처럼 한·일·중이 한 배에 탄 제주 정상회의(5.29-30)가 종료됐다. 같은 문화권이라 잘 통할 것 같은 세 나라는 예상과는 달리 매사에 삐걱거리기만 했다. 그만큼 풀어야 할 역사적 구원도 많고 경쟁심도 만만치 않다.

그런 세 나라가 화창한 제주 날씨를 만끽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논했다.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비전 2020’이 채택되고 이를 위한 상설사무국을 한국에 두기로 했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통합 추구,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도 여기에 담았다.

특히 한-중은 양국 간 FTA의 실무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한-일은 FTA 협상 재개의 실무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3국은 한·일·중 FTA체결을 위한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동상이몽 속에 자국의 산업별 특실만 앞세워왔던 분위기와는 달리 3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중한 논의를 차분하게 진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소득이다. 이번 제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중 FTA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천안함 사건’이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회의 내내 주목거리였다.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인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천안함 전몰 장병에 대한 애도 묵념에 동의하고, 유족에 대해 애도를 표한 것에서 중국의 깊은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김 영 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천안함 피격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분석을 진행 중이라던 기존 태도에서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밝힌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 문제에 대한 세계 이목을 의식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전개되는 북한 제재에 어떤 카드를 선택할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예전처럼 북한만 감싸는 행동으로 버티낼 것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태도를 미리 예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 없다. 천안함과 관련된 진실과 해법을 국제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확산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현재로선 최선의 길이다. 중국이 이미 그 해법을 밝히지 않았는가. “각국의 반응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특히 이번 회동에서 일본 역할이 빛났다. 대전 현충원의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정상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묵념을 제안했으며, 북한의 명백한 반성과 사회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 하토야마 총리의 언행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이런 한일 공조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전달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잘못한 북한을 그냥 넘어가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 전쟁해보겠다는

거냐며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결심을 중국과 일본에 이해시켰다. 대남 공산화 목표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 주민을 굶기면서도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당국을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점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소득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 시간에 맞춰 평양 10만 군중대회를 개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를 겨냥, 체제 단결을 획책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북한 통치권자의 당연한 선택이다. 천안함 소문이 북한 내부에 벌써 퍼진 지 오래다. 남조선

배를 공화국이 주장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만간 전쟁이 난다는 수근거림이 돌고 있다. 굶어죽으나 전쟁 나 죽으나 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 심정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지리한 싸움은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끝을 보자.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도 이번으로 끝내자. 도와주면 감읍해서 변하겠지 하는 짝사랑도 이제 그만 두자. 대신 북한 통치엘리트들이 어떤 사고에 져든 사람들인가를 이번에 똑똑히 보자. 잘못된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이번에 철저하게 깨닫고 익히자. 이번 제주 정상회의에서 보인 한·일·중 3국 공조가 이런 희망을 싹틔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6.15 10주년과 從北세력의 맹목성

올해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만 10년이 됐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과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통일방안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인도주의의 문제 해결 △각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 정상간 최초의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의 서울 답방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6.15선언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은 남측에 대해서만 6.15정신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향해 '역도' 등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남북간 호혜협력의 정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從北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은 매년 6.15를 계기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대북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대남도발이 응당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으면서 대북 화해협력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南南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올해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6.15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5월 23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死去 1주기도 이런



한 기 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활동에 적극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2007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약속한 10.4 공동선언을 한 장본인이다.

또한 국내 從北세력들은 지난 3월 26일 있었던 천안함의 침몰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조에 입각한 민관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선체 피로설, 좌초설, 한국 기뢰에 의한 침몰설, 심지어 군사훈련 중인 미국잠수함의 어뢰에 맞았다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한사코 북한 관련성을 인정치 않는 외눈박이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자생적 從北세력은 80년대 중반 당시 권위주의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의해 그 주류가 형성되었으나,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아사에 따른 위기상황과 맞물려 이들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 대북 화해협력노선은 이들의 기사희생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들의 從北행위는 앞서 말한 대로 맹목적인 것이 되어 아예 자신들의 생각에 조그만 의심도 하지 않고, 현실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입각해 사실도 왜곡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상태로 변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명명백백한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한국 국민을 위시해 해외동포, 세계인이 아는 것이다. 이국을 떠도는 탈북자,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수인들의 생활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햇살 아래 생생하게 밝혀지는 것뿐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주민이 굶어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인간이다. 그런 자가 남쪽의 국민과 해외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정 많은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정권이 떠드는 민족제일주의, 민족화해란 그 진정성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진정한 민족화해란 북한을 굶주림과 공포로 몰아넣은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진정한 주인인 2300만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 그 일보가 내딛어 질 것이다.

## 김정일 訪中과 북한의 한계

김정일의 이번 중국방문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심화를 비롯한 5개항에 합의 하였다. ▲ 양국간 고위층의 상호교류를 심화하고 ▲ 내정과 외교,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 사회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합의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투적이고 인접국들끼리 당연히 해야 할 최소 수준의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다. 과거에도 中-北 수뇌자들은 이번에 합의한 5개항보다 더 요란한 다양한 합의들을 이미 이루어 왔다. 왜 또 이런 합의들을 했을까. 과거의 합의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북-중간 현실이 낳은 결과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정치, 군사, 안보, 경제의 전 영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이고 경제규모에서 곧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이 될 나라이다.

이런 중국과 혈맹으로 맺어져 있다는 북한은 어떤가? 세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더딘 국가이고 굶주림과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대열에 서 있다. 왜 이럴까? 중국은

개도국 지원에서 북한을 항상 최상위에 놓을만큼 경제적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정치·안보적 보호도 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있다. 中-北 경험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치적 이질성으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제도적, 정책적, 행정적, 관행적 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최근 북한이 남북한 대표적 경협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몰수’한 조치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체제 불안으로 인해 통행, 통신,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력수급이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자유로운 소통도 힘들다. 여기에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경제 제재로 인해 해외의 대북투자 기피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中-北 경험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조건들이다.

中-北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체제의 내적 한계로 인해 중국의 어떤 다양한 지원도 성장과 연동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식량난 생필품난, 에너지난 등 현재의 북한 경제현실이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지원과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설사 그것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핵포기와 함께 북한 체제 내에 상존하고 있는 제약여건의 소멸노력과 연계되어 지지 않는 한 中-



조 명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北 경험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내기 힘들다.

북한 당국이 미북 핵대결과 남북대결의 에너지를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지속발전을 위해서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은 외부세계의 원인이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의 경직성과 비효율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비인권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역사와 과거 한 때의 이념공유로 인해 거대한 중국이 성장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지향을 꺾으면서까지 북한과의 과거 관계를 유지할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지원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새로운 효율적인 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이 수많은 외부세계의 지원이 북한의 성장과 연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핵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이번 방중은 그 의미가 적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발전자체도 기대 하기 어렵다.



## 상식 파괴자

그레고리 번스 (지은이) | 비즈니스맵 |

MRI, 소아마비 백신, 만화영화, 게임기 등 현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처음에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심지어 우리는 '운동선수 중에는 왜 흑인이 많을까?'라고 궁금해 하지 '어떻게 흑인이 운동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흑인선수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겨우 5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던, 즉 상식을 뒤집어 볼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됐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변화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변화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를 선도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 책은 2등 전략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유리공예의 대가 데일 치후리부터 시대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까지 과격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여러 상식파괴자들의 사례를 통해 창조적 파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 소녀

미나토 가나에 (지은이) | 오유리 (옮긴이) | 은행나무 |

<고백>의 작가 미나토 가나에의 청춘 소설. 타고난 성격과 처한 환경, 고민, 가치관 등이 전혀 다른 두 소녀 아쓰코와 유키. 또래 아이들이라면 갖고 있을 만한 죽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혹은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된 두 여고생이 '죽음의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각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작품에 담겨 있다.

유키가 쓴 소설을 담임선생님이 훑쳐가 신인문학상을 받게 됐다. 아쓰코는 그 소설이 유키가 쓴 것임을 직감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모델로 썼다는 것이 불쾌하다. 이 때문에 둘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먹해진다. 현실에서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고민에 힘들어 하는 두 소녀는 죽음의 순간을 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

아쓰코는 노인요양센터, 유키는 소아과 병동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을 주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는데... 이야기는 유키와 아쓰코의 독백으로 흘러간다. 두 사람의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일기 형식으로 나열된다.



##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지은이) | 정영목 (옮긴이) | 이레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국내에 알려진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여행서이다. 보들레르, 플로베르, 위즈워스, 고흐, 호퍼, 버크, 러스킨, 위스망스 등의 예술가들을 안내자로 삼아 '왜 여행을 떠나는가?'부터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테마로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예술가들이 남긴 글과 그림이라는 발자국을 따라 런던, 바베이도스, 마드리드, 이집트, 시나이 사막, 암스테르담, 레이크디스트릭트, 프로방스 등으로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며 그들의 고독, 방랑, 고집, 반항, 초월, 깨달음, 예술가로서의 선택과 희망을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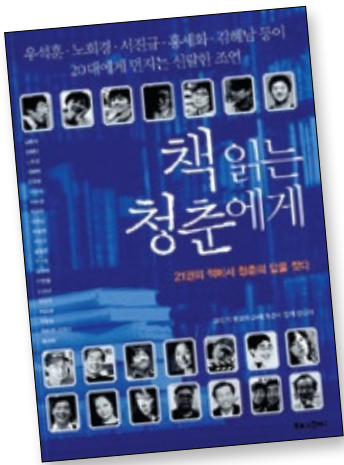




## 장자에게 배우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

이인호 (지은이) | 새빛에듀넷(새빛인베스트먼트) |

장자의 입을 빌어 바르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꿈을 이룬다는 공부도 한낱 꿈일 따름이며, 심지어는 급할수록 걸음을 멈추라고 말하는 책. 저자는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장자에게 배우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으로 절욕, 허심, 여유, 자족, 유희 등을 꼽았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자연과 화해하고 공존하겠다는 마음, 효율과 시간을 다투는 생활이 당장은 우리의 생활을 부유하게 해줄지언정 결국은 우리 모두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위기감 정도만 느껴도 장자로부터 충분히 얻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21권의 책에서 청춘의 답을 찾다 책 읽는 청춘에게

이영철 (감독) | 김혜남 | 노희경 외 |

대한민국 20대가 가장 읽고 싶은 멘토인 안철수가 추천한 책. 21인의 멘토와 7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책 읽는 청춘에게>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가슴 뜨거운 메시지들과 좋은 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책이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갓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들, 30대를 바라보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어 주는 희망과 응원이자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영화감독 민규동이 추천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깃들어 있으며, 영철버거 CEO 이영철이 추천한 <설득의 논리학>에는 상대를 향한 이해가 담겨 있다. 또한 언론인 홍세화는 <자발적 복종>을 읽으며 자유를 지향하는 자신을 찾았다고 했으며, 부부 여행가 최미선·신석교는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통해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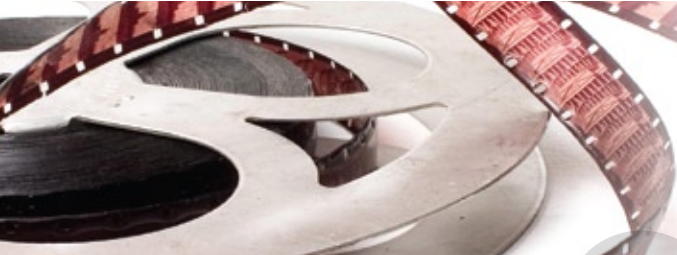
## 클래식 시대를 듣다

정윤수 (지은이) | 출판사 너머북스 |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는 시인 김수영의 메시지처럼 과거의 클래식 역시 그 시대에는 불편한 음악이 아니었을까. 저자가 시종 주시하는 키워드는 ‘불협화음’이다. 당대의 사회적, 사상적, 예술적 한계와 씨름을 벌인 불협화음의 역사가 바로 클래식의 역사이고 동시에 인류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서 당대의 사상과 문화가 어우러진 ‘클래식 문화사’를 들려준다.

이 책은 작곡가의 주요 작품을 나열하거나 전문용어를 구구절절 해설하지는 않는다. 개별 작곡가의 신상명세나 경력사항 혹은 사소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언급하고 ‘고독한’, ‘우울한’, ‘천재적인’ 같은 진부한 표현도 멀리한다. 대신 꼭 들어볼 만한 불멸의 명반 78장을 본문의 특정 지점에서 표지와 함께 실어주고,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세련된 교양이나 ‘우아한 기품’이란 말을 떠나서,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는가를 고려한다면 클래식을 듣는 일에 조금은 신중할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대의 현실에 몰입함으로써 당대를 초월했다. 슈베르트는 시대의 멀미를 느꼈고, 그래서 외로웠고, 쇼스타코비치는 감시와 처벌의 상태에 있었으며, 그래서 고독했다. 클래식은 이란 한가로운 소비가 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이다.



## 포화속으로

포화속으로'는 권상우 외에도 차승원, 권상우, 최승현(T.O.P), 김승우 등 화려한 캐스팅, 113억원이라는 엄청난 제작비와 화려한 연출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50년 8월 한국전쟁의 운명이 걸린 낙동강 지지선을 지키기 위한 남과 북의 처절한 전쟁 한복판에서 교복을 입고 포화 속으로 뛰어 든 학도병 71명의 슬프고도 위대한 전투를 그렸다. 6월에 개봉될 예정이다<포화 속으로>는 거대한 전쟁의 운명을 바꾼 71명 학도병의 전쟁 실화의 감동, 차승원, 권상우, 최승현(T.O.P), 김승우, 박진희의 화려한 캐스팅, 113억이라는 엄청난 제작비와 화려한 연출력으로 할리우드 입성을 앞둔 이재한 감독의 작품.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영상은 71명의 학도병을 이끄는 중대장이지만 거대한 전쟁 속에 내던져진 소년, 오장범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탐의 열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학도병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포항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 그리고 전쟁을 향한 어린 소년의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장병으로 분한 T.O.P는 이번 작품을 통해 실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인물의 감성을 그 누구보다 리얼하게 표현해냈다고...



## 스트리트 댄스 Street Dance

심장을 뛰게 할 그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스트리트 댄스 챔피언쉽 결승전을 앞두고 있지만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은 칼리와 친구들. 우연한 기회에 로열발레단 원장으로부터 스튜디오 사용 허가를 받지만 발레팀과 함께 새 안무를 짜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출중한 실력을 갖췄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인해 사사건건 대립하고 경쟁하는 두 팀. 하지만 춤에 대한 열정과 목표만큼은 같다는 걸 알게 된 이들은 차츰 서로를 변화시킨다. 힘을 합쳐 발레와 힙합을 결합한 신개념 댄스 '발렛팝'을 완성한 이들. 마침내 스트리트 댄스 최종 결승전에 출전해 발렛팝을 선보이게 되지만, 아직 이들의 춤은 관객들에게 낯설기만 한데...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807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b>기독교</b>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	---------------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 대형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짚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리)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씨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씨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Hits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iron,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Little Lambs**  
International PreSchool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굿 - 머니**  
MONEY CHANGER  
(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라와피)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중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7000 9333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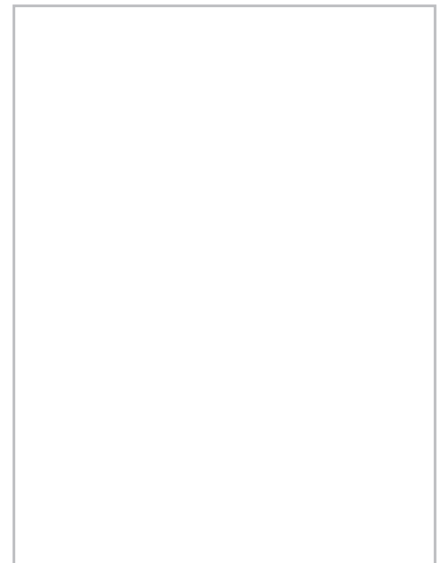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루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열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플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한국가든 203 347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 6월 공지 사항

## 최근 인니내 테러위협 고조 관련 신변안전 유의

1. 인니 테러조직들은 6월 중순 예정된 오바마 美 대통령의 인니 방문 직전 또는 기간 중 외국관련 시설, 교회 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교민 여러분께서는 동 기간중 외국관련 시설(외국계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 출입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한인교회들은 주변에 의심스런 사람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 대사관측에 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업소출입관련

최근 특정 가라오케를 출입한 교민이 폭행, 마약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라오케 등 유형업소 출입 시 현지인 종업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사건 발생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범죄유의

최근 야간에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하고 운전자가 와이퍼 작동시 전방 시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차를 하면 인근에 대기하던 범인들이 금품을 강-절취하거나 타이어에 펑크를 낸 후 운전자가 하차시 금품을 강-절취하는 수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손상이 생긴 경우나 계란이 투척되었을 경우 와이퍼를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조치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BS 해외동포상 추천

KBS에서는 제16회 KBS 해외동포상 추진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세계 곳곳에서 인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 시상할 예정입니다.

KBS 해외동포상 추천기준에 부합되는 재외동포 중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동포들께서는 별첨 서류(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및 공적증빙자료(관련 논문등)를 8.20(금)까지 대사관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만 국경통제관리

### (BCM-Border Control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시행

이민청은 국제공항만에 십지문 채취 및 안면사진촬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3.27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 시스템이란?

- 출입국자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시 여권 스캔,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 자동출입국규제자 조회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에 없던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에 따른 출입국심사 지연이 예상됨.

### 2. 적용대상

- 출국 및 입국하는 모든 자국민 및 외국인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 외국인, KITAS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 BCM 시스템 등록 외국인(수시 출입국자는 최초 1회만 실시)

### 3. 시행일자

- ADI SOEMARMO 공항(SOLO 소재) : 2010. 03. 09

- ADI SUCIPTO 공항(JOGJAKARTA) : 2010. 03. 11

- SOEKARNO HATTA 공항 : 2010.03.27

※ 금년 중으로 27개 출입국공항만에 구축 예정

4. 따라서, 당분간 출입국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나, 동 시스템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심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 HuNet KOREA 안내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온라인 신청)

우리 법무부는 국내에서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컨대, 교수, 어학강사, 과학기술자, 연구원, 고급기술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신청하는 HuNet KOREA 인터넷(www.visa.go.kr)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국민 중에서 글로벌 리더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증추천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팜플릿을 참고하시어 주위의 유능한 현 지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추천인이란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HuNet KOREA (www.visa.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컨설팅.M&A.부동산.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계.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 중재.재단법인.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제사(한인회 자문번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 가능)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회장 인치혁)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수시

회원자격 : 미술 전공자 또는 전시 경력자

연락처 : 김영민 (0818-916-566)

김수영 (0858-8543-6348)

재인도네시아아 한인미술협회



# 교민 여론광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에, 회사에, 친구에게 ... 한인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과, 회사와, 친구와 ...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평소 머리속을 맴돌며 궁금했던 질문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인뉴스에서 '교민여론광장'의 문을 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한이뉴스 지면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

한인뉴스 편집부 이메일 : [haninnews123@gmail.com](mailto:haninnews123@gmail.com)

문의 : 김영민 편집위원(hp: 0818 916 566)

\*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핸드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시는 분의 요청이 있을 시 익명으로 게재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없는 비방글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경비시스템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교통 및 입지 조건이 좋은 사무실



**WISMA KORINDO** 고속도로 진입 용이: 공항, 땅거랑, 보고르  
임대문의 021) 797-1515 Jl. M.T. Haryono Kav.62 Jakarta Selatan

자연과 하나되는  
건강한 생활이 시작 되는 곳!



임대형 180 m2, 150 m2

도심속에 있는 자연 친화형 단지



APARTEMEN  
**TAMAN  
RAJA**

산책과 함께 체력을 단련 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농구장/수영장/휘트니스 센터



**Taman Raja** APARTEMEN  
임대문의 021)794-2021

내 집 정원처럼 즐기는 녹지 공간 / 방음, 방열 창문유리 / 인터넷 사용 무료 / 식모방 별도 출입구  
Jl. Warung Jati Barat I, No83. Kalibata Pancoran, Jakarta Selatan